

第252回國會
(臨時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2月28日(月)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업무현황보고(계속)
 - 가. 방송위원회
 - 나. 한국방송공사
 - 다. 국정홍보처
 - 라. 해외홍보원
 - 마. 영상홍보원
2.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따른 「한·일 우정의 해」 문화교류 행사의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결의문

審査된案件

1. 업무현황보고(계속) 3
 - 가. 방송위원회
 - 나. 한국방송공사
 - 다. 국정홍보처
 - 라. 해외홍보원
 - 마. 영상홍보원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이 삼일절입니다. 올해가 광복 60주년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 60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가 얼마나 일제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어제 뉴스에서 2차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준비과정에서 작성된 영국정부의 지도에 독도는 분명히 한국영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독도는 물론 울릉도까지 자국영토로 편입하려 연합국 대표들에게 로비를 벌였던 그러한 흔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비롯해서 얼마 전 다카노 도시유키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그러한 망언, 일본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상정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광복 60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일제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올해는 또 한편 “한일 우정의 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와 연관돼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국의 거리를 좁히고 이제 새롭게 한일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일 우정의 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겨울연가의 일본에서의 선풍적인 인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한일관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구나 하는 기대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은 과연 우리가 한일 우정의 해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문광위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상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카노 도시유키 일대사는 반드시 소환해야 된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일 우정의 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 한국 안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일본대사가 이러한 망언을 하면서 한일 우정을 다진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 안도 함께 철회되어야 된다, 적어도 최근에 일어났던 이 두 사건들이 제대로 제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한 저는 한일 우정의 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경 예, 정병국 위원님!

○정병국 위원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동료 위원 몇몇 사람들이 며칠 전에 이와 관련해서 성명서도 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올해는 한일우호협정 40주년 기념행사가 있고 또 이 행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문화관광부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일본 측의 무성의와 도발적 행위를 그대로 놔두고 한일 우호협정 4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치욕적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별도로 한일우호협정 4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일대사의 망언 이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한국 일본대사는 소환이 아니라 추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주일 한국대사도 소환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원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위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나아가서 3월 2일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우

리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김재홍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미경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 위원 김재홍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정병국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2005년이 한일국교 정상화 40주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한일 우정의 해를 내세운 데에 대해서 사실 좀 불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2005년은 을사늑약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양국의 외교관계, 한일관계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동북아 국제질서에도 중요하고 또 세계평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수교 40주년만 내세워 행사를 준비해 온 정부로서도 이 기회에 전면 재검토해 주기를 촉구하고 행사 전체를 취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제 자리 찾는 행사의 하나로 우리로서는 을사늑약 100주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적 차원에서는 2차대전 종전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해방 60주년입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국회 문광위 차원에서의 결의안을 준비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지지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이 문제로 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 문화관광위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상호 간사 오시면 협의해서 다시 제안하도록 하고, 그리고 문광부에 대해서는 한일 우정의 해에 관련된 행사 내용 전체를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인식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는 전면 취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지 하는 것까지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카노 도시유키 일대사의 추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방송위원회

나. 한국방송공사

다. 국정홍보처

라. 해외홍보원

마. 영상홍보원

(10시22분)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방송위원회의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후 오후 2시에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 등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노성대입니다.

2005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방송위원회의 업무현황과 주요정책현안보고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방송·통신 업계는 융합이 가져다주는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함께 개척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정책적 지원기능 강화와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적합한 제도마련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갖은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사업으로는 오는 3월 시상식과 함께 제작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이 밖에도 신규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디지털케이블 육성, 지상파디지털 전환지원 그리고 지역방송 발전정책과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방송발전을 위한 자양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첨단을 달리는 컨버전스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결집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DMB 시연을 했고 오는 4월에는 프랑스 칸느에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시연 기회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는 11월 부산 APEC에서도 필요하면 앞서가는 방송콘텐츠와 컨버전스 기술 홍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본질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적합한 제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대로 열린 논의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종사자와 IT업계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논의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방송위원회의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성 부위원장입니다.

표철수 사무총장입니다.

최준근 연구센터장입니다.

정순경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춘식 방송정책실장입니다.

정진우 방송진흥국장입니다.

황부군 시청자지원실장입니다.

함상규 감사실장입니다.

윤혜주 평가심의국장입니다.

조규상 매체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업무현황에 대해서는 표철수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위원회사무총장 표철수** 방송위원회 사무총장 표철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 가운데 일반현황과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하고자 합니다.

주요현안 12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체계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관련 산업의 균형발전과 종합적·체계적 정책 수립을 위해서 방송·통신 감독기관 통합 필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방향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설립을 위한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문제는 방송통신체계의 토대를 재정비하는 국가적 주요 현안이므로 관계기관과 사회 각계 대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기구인 가칭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관련해서는 방송민주화의 사회·역사적 전개과정을 감안하고 또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법적 지위가 필요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주파수 배분, 기술표준 제정, 시장규제와 분쟁조정, 콘텐츠 규제 등 방송과 통신의 정책과 규제기능을 총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모델은 미국의 FCC모델, 영국의 Ofcom에서 하는 형태와 유사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의 향후계획은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이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적극 협력을 하며, 방송통신체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반을 확대·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위정책협의회와 실무정책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해서 방송·통신체계 정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증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청자 복지 확대와 권익 신장, 또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공익성 확보, 그리고 지상파 DTV방송 프로그램의 이동수신 활용, 국내 방송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었고 사업허가추천 신청요령 설명회에 이어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결과 지상파TV사업자군 4개, 그리고 비지상파TV사업자군 6개 등 모두 10개 법인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은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

명한 절차를 거쳐서 다음달 중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 신청법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DMB의 지상파 재송신 여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불허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허가추천 시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고 지난해 12월에 TU미디어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위성 DMB의 지상파방송 재전송 문제는 현재 이 시점에서 지역방송을 중심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앞으로 융합형 이동방송의 신규서비스와 유료방송인 위성 DMB의 특성, 그리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과의 경쟁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 정책방침을 정한 대로 다음달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허가추천 때 지상파 재전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방송위원 워크숍이나 전문가 토론회, 의견청취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P-TV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회는 IP-TV를 이용한 방송사업의 규율방안을 마련해서 방송매체 간,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자사의 IP망을 이용해서 VOD서비스는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포함한 다채널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IP-TV의 문제점은, IP-TV는 서비스형태와 사업모델이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동일하므로 상호간 강력한 경쟁매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유선망을 이용한 다채널 방송서비스를 주요사업모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IP-TV에 대해서 정통부는 인터넷망과 쌍방향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이것이 통신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위

위원회 입장은 IP-TV는 방송법상의 방송의 개념적인 요건, 즉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해서 이를 공중에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이런 요건들을 모두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서비스로 봐야 하며 현행 방송법상으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려는 IP-TV사업 확산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별정방송사업개념을 도입해서 공익성·공공성은 확보하되 매체 간 균형발전, 그리고 뉴미디어에 대한 사업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계속 하고 이에 따른 법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병국 위원 정통부가 이것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어요?

○방송위원회사무총장 표철수 협의는 저희들 실무정책협의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협의를 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방송의 디지털화로 데이터방송이 도입됨에 따라서 방송의 공익성 실현과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고 데이터방송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데이터방송 정책방안을 의결한 이후에 사업자설명회를 거쳐서 지난 달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 접수한 결과 모두 13개 법인이 신청을 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되 상품판매형은 10개 이내로 선정을 하고 앞으로 용역제공형에 대해서는 수시로 승인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에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TFT를 8월에서 9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접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MIPTV/MILIA ‘한국의 날’ 행사 개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규모의 방송과 뉴미디어에 관한 국제 행사인 MIPTV/MILIA 이것은 국제영상물 견본시와 컨퍼런스를 겸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날’ 등을 개최해서 우리나라 방송의 해외진출 확대와 DMB서비스 표준화 추진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MIPTV는 41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의 미디어콘텐츠 견본시로 90여 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MILIA는 12년 역사를 가진 쌍방향, 모바일, 인터넷 등 유통 플랫폼 관련 컨퍼런스로서 작년부터는 MIPTV와 MILIA가 통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MIPTV/MILIA 2005 행사에 방송위원회가 주빈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간에 열릴 컨퍼런스 중에 한국을 집중 조명할 수 있는 섹션을 크게 나누어서 한류와 디지털코리아, 그리고 DMB 등 세 분야로 나누어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데 4월 12일에는 ‘한국의 날’ 기념 공식만찬을 개최할 예정이고, 행사기간 내내 지상파 DMB와 위성 DMB 서비스 관련 장비업체의 부스 시연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보광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시보광고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 방송협회와 방송사, 그리고 광고공사 등과 관계자 회의를 열어서 제시된 내용들을 즉 검토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손봉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시보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추진 여부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현행 방송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송콘텐츠 활성화 종합대책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방송콘텐츠산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통한 방송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방송발전기금 지원과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송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지원사업 체계를 정립하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5월 말까지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5월 초에 한국 방송프로그램 해외로드쇼를 해서 한류 강화와 신규시장에—주로 중앙아시아 위주가 되겠습니다—국내 방송콘텐츠 소개와 수출계약 체결 등을 위한 현지행사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 활성화 세부추진방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EBS 사장 선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 EBS 고석만 사장이 사임함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대로 다음달 19일까지는 사장을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앞으로 방송위원회는 공모제 등을 통한 투명한 선임절차를 진행해서 곧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인방송 재허가추천 거부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저희 방송위원회가 경인방송에 대한 재허가추천을 거부함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경인방송이 텔레비전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정책방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인방송은 재허가추천이 거부된 이후에 지난해 12월 27일 정리절차를 진행할 15명을 제외한 임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12월 31일 텔레비전 방송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 지난 1월 29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서 지난 2월 14일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인방송의 해고된 직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인지역에 새로운 지역민방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고 위원회에 신규사업자 선정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은 해당 권역의 신규사업자를 허가추천할지 여부를 포함한 정책방안을 다음달까지 검토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6월까지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경남지역 민영방송정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민의 민방 시청권 소외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방안입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현재 이 지역에서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에 대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실현해 왔습니다. 양 사의 입장 차이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지난 4월 1일에는 울산방송의 최다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최다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렇게 오랫동안 경남지역의 민방 혜택을 소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다음달 중에 광역화 추진방안 및 기본계획을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3월 말에는 광역화 추진방안과 기본계획을 의결해서 광역화 추진은 4월부터 할 생각입니다.

(이미경 위원장, 정병국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채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문화적 다원성과 방송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채널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방송의 공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고시하고자 해서 행정예고한 안은 55쪽 상단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달에 내부 규제심사를 거치고 4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그리고 4월 말에 공익성 방송분야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방송위원회 산하 위원회 현황과 유관·산하기관 이사, 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웅래 위원입니다.

아까 IP-TV 말씀하셨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노웅래 위원** IP-TV를 둘러싼 방송위와 정통부의 논쟁이 마무리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보기는 아직 좀 빠른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통부가 iCOD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방송콘텐츠를 주문형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이제 iCOD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통신입니까, 방송입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저희가 볼 때는 개구리를 두꺼비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개구리가 두꺼비가 되는 것이냐? 이것은 좀 있을 수 없는 말이 아닌가……

○**노웅래 위원** 그러면 논쟁이 마무리가 안 된 거네요. 교통정리가 안 된 것이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노웅래 위원** 그러면 정통부가 iCOD 허가를 낸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때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이효성 부위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그것을 방송서비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통부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시비가 계속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방송통신위원회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제가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방송·통신 융합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총리가 얘기하시기로는 융합서비스 시장규모가 전체 시장규모의 0.5%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령 만약에 이것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국민수혜자 관점에서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조직 융합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융합체제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정병국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계속 나타나고 현재의 시장규모와 상관없이 앞으로 방송·통신

산업은 융합서비스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적인 조류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외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특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시급히 정부 부처 간에, 이해관계 부처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DMB 사업자 신청 마감했지요? 그러면 3월 15일에 선정자를 발표합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3월 15일까지 가능하면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심사위원회는 이미 구성되었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위원** 심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관계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 재단 그리고 관련 기업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연수 갔다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포함 안 되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배제할 것이고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할 때도 그런 사항을 설명해서 그런 분들이 추천이 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노웅래 위원** 투명성 논란, 공정성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해 주시고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사업자를 6개로 나누어서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케이블 발족할 때도 그랬고 위성 방송 때도 그렇고 스카이라이프 때도 그렇고 이것이 중복·과잉투자가 되는 것 아니냐, 6개 선정하는 것 시장조사한 것이요? 수요공급 예측해서 하신 것이요?

우리가 일단 보기에 이것도 보나마나 국고 전체로 보면 중복·과잉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 부분은 방송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정통부와의 관련 속에서 결정된 정책인데 정통부에서 현재 VHF 채널당 3개의 사업자가 나오도록 주파수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6개 사업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저간에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시장조사나 수요공급 예측을 다 하신 것이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가 따로 그동안에 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장밋빛 전망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실현될지는 의문이고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조사에 입각해서 6개를 선정하신 것이에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진 위원** 이계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사는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한 것이, 현재 방송국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방송국이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지상파, 위성, 케이블, 라디오 FM……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전반적으로 뉴미디어가 나오니까 기술발달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데가……

이효성 부위원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우선 전통적인 지상파방송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은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나라가 있고, 그렇지만 도입은 다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특별히 다른 나라에 없는 이동수신방송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스테이션 숫자가, 채널 숫자가 지금 몇 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가 특별히 많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미국 같은 데는 케이블 TV의 경우에도 채널 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서로 다른 나라의 방송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계진 위원** 진짜 이렇게 많은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정 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 위원회에서 그 점은 고려의 대상이기는 한데 기존사업자

나 신규사업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신규사업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차원에서는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진 위원** 이것이 나중에 국가의 장래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 돌 던지면 대충 방송국 직원이 얻어맞을 정도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KBS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방송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KBS 결산 승인 전에 감사원 결산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또 이익잉여금을 국가에 납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할 것을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KBS하고 언론·시민단체 이런 데서 KBS 독립 훼손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반대의견이 거세지 않습니까?

현재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밀고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지요. 그러니까 확정안이 의결이 되려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이고 3월 중에 두 차례 공청회를……

○**이계진 위원** 처음부터 공청회를 계획했었습니까? 혹시 물러선 것은 아니신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KBS 의견만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런데 이런 발상이 왜 나왔는지, 혹시 좀더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시도는 아닌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KBS 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추후도,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계진 위원** 추후도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이 당해야 되는 쪽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내용이거든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들은……

○**이계진 위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업무나 고유권한과 관련이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저희가 일부러 얘기하면 마치 저희 권한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비출까봐 조심스럽지요. 현재의 업무권한과는 다소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계진 위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 자

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문제 갖고 계속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경인방송과 관련해서 지금 방송국채허가 추천거부가 단순히 한 방송국이 없어졌다는 것 이외에 부작용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납품업체라든지 돈들 못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저희가 당초에는 경인방송채허가가 취소되는 사태까지는 예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형국으로 내몰렸던 것 같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래서 그런 고통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잘하지 않으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습니다. 이계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이계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없어진 채널을 활용한다면, 허가를 낸다면 어느 쪽으로 허가를 내주실 생각인지 그런 계획은……

○**방송위원장 노성대** 저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

○**이계진 위원** 지금 노조 중심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여러 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말이 나와,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계진 위원** 시간관계상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입니다.

현재 난시청 가구가 72만 가구에 이르지요? 그래서 54만 가구가 유선방송에 가입한 상태이고 7만 가구가 KDB에 가입해서 유료로 방송을 시청하는데 약 10만 가구가 난시청 가구지요? 그런데 난시청 가구는 국가가 풀어야 될 시급한 과제 아닙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KBS 소관입니다.

○**이경숙 위원**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수신환경개선사업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KBS 하고 KDB하고 방송위원회하고 했는데 무산되었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우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배정해서 실태부터 조사할 생각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것이 무산되어 가지고 KBS는 지역국 링크형 위성신호를 통해서 시청자가 직접 수신하려고 하는데 방송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권역별 재송신 때 이것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44조(공사의 공적 책임)에서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KBS가 권역별 재송신할 때 중단한다면 방송위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가 스카이라이프에 지상파재송신을 허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KBS의 경우에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여러 가지 의무가 있고 또 해외동포에 대한 방송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서 무궁화 3호를 통해서 스크램블을 해제해서 난시청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이경숙 위원** 현재 권역별 재송신하면서 스크램블을 걸게 되면, 대충 난시청 지역은 산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스크램블을 걸게 되면 KDB에 가입을 해야 되고 매달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에게 돈을 매달 내는 것이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KBS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법으로 보완을 해 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KBS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무궁화 3호를 이용해서 스크램블을 풀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두 가지 안 중의 하나가 대충 언제까지 결정될 것 같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가급적이면 TU 미디어에 지상파재송신할 때까지 원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몇 달 내에 가능한 건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이경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지상파방송이라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보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KBS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방송위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상파 DMB가 무료서비스로 제공되지요. 그런데 현재 올해 조사에 의하면 지상파도 광고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시장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상파가 지금 광고가 축소되었는데 유료서비스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광고 때문에 유료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같지는 않고 지상파 DMB의 서비스가 주로 지하철이나 지하공간 이런 데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곳에는 갭필러(Gap Filler)라는 것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본과 기술은 방송사보다는 이동통신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DMB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이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약간의 투자비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아마 유료화가 얘기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의견이 지상파 DMB의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상파 DMB는 광고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지만 어느 정도 단말기가 보급이 되는 상황이 오면 상당히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숙 위원** DMB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너무나 비계량이 많다, 현재 1000점 만점에서 재정적 능력 150점 말고는 다 비계량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말썽이 되지 않도록 잘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상파 DMB가 T-커머스가 아니면 기존의 지상파 콘텐츠만을 활용하는, 그

래서 새로운 매체로서의 역할을 못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심사할 때 잘했으면 좋겠고, 앞서 이야기한 방송질서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사후의 관리감독 방안,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상파 DMB나 위성 DMB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조사를 하시고 이후에 결과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위원님의 우려와 지적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다.

저는 바람직한 방송정책의 방향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송위원회가 입법예고한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은 오히려 바람직한 방송정책의 방향을 조금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이의 시선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추후도 그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관이 또는 방송위원회가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가 너무 소박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하도 우는 소리가 저희 생각보다는 커 가지고 저희도 조금 놀랐습니다.

○**김재윤 위원**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방송위원회는 KBS의 독립을 더 강화하고 또 KBS가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좀더 폭넓은 시각으로,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김재윤 위원님 지적을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다음에는 위성 DMB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위성 DMB 지상파 재송신이 허가될 경우에 지역방송국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내부에서 여러 가지로, 갈수록 기술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전파라는 것이 국경도 없고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지역방송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DMB…… 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전국방송단위의 방송들이 지역에 넘쳐 흐를 때 지역방송을, 저도 있었지만 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서울 프로를 보지 지역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지역방송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3월 중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저는 분권이라는 것은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전체적인 방송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면서도 고유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DMB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해서 방송위원회가 참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DMB 지상파 재송신을 불허할 경우에 TU미디어 측에서는 사업권을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런 의견을 공식적으로는 접수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왔고, 또 사실 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사상이 불온한 반국가단체다 하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역방송에 대한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반납하겠다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무작정 위성방송 TU미디어 쪽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밝혔던 원칙 그대로 지상파 DMB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9명의 방송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윈윈 쪽으로 갈 수 있는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을 3월 중에 내릴 것입니다.

○**김재운 위원** 만약 불허할 경우에는 이미 위성 DMB 단말기를 구입한 구매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경인방송의 재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 시청자들이 지역방송을 전혀 시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우선 저희가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기 전까지 그런 사태를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사측과 노조 측을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가급적이면 경영계획도 경영계획이지만 우선 당신들이 화합하고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랬는데 끝까지 경영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노사가 거꾸로만 치달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후유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에게 허가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재허가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리고 있고, 조만간 외부 연구용역도 발주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방송위원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방송국이 공익적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제안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정책도 제가 봤습니다. 공익적 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고요, 미디어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투여, 정책적인 지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김 위원님이 강조하신 미디어교육도 저희 위원회의 큰 관심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위원** 방송위원회 상대로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많은 부분들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 또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

에 대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노성대 위원장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이 조약의 취지는 방송을 포함한 문화서비스는 무역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방송위원회가 작년 8월에 정리한 협약안 검토의견 개요를 봐도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현재도 위원장께서는 동의하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지금 초안을 마련 중이고 늦어도 올 10월에는 확정될 예정인데 핵심조항은 19조로 WTO나 FTA,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조약이 해당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에 문화협약이 우선하느냐 아니면 문화협약이 침해를 받느냐 하는 이른바 옵션A, 옵션B로 나뉘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옵션A가 확정되면 90년대 초반 UR에서 개방한 수준에서 영화라든지 방송은 자율적으로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지난 UR 협상 때 영화 같은 경우는 스크린쿼터만 남고 다 개방됐고, 방송 개방은 우리가 상당히 지켜낸 것도 확인하고 있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유네스코에서 작년 9월하고 올 1월에 개최한 문화다양성협약의 정부 간 회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방송위원회에서도 참석했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작년 9월과 올 1월 두 번 다 참석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한 번만 참석했습니다.

○천영세 위원 작년 9월에는 참석하고 올 1월에는 참석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 다 받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협약 초안에 대해서 유네스코에 제출한 의견서를 제가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이게 비밀이 아닐 텐데 참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동 협약에 다른 국제협약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옵션A도 아니고 옵션B도 아닌 제3의 의견을 정리해서 내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천영세 위원 방송위원회 의견대로라고 그런다면 말이 좋아서 동등한 가치이지 기존 협약인 WTO나 FTA하고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방송을 포함한 문화의 다양성을 지켜내는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양해해 주시면 이호성 부위원장이 이 관계를 죽 스테디해 왔기 때문에 답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답변을 좀 보류하시고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에 참여하면서 방송위원회에서는 한 두 개 방송사를 제외하고서는 방송계의 여론수렴을 별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수렴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해 국회 문광위에 추진 과정도 알리고 동의도 구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어야 되는데 국민대의기 구인 국회에서조차도, 바로 이 자리에서조차도 한 번도 언급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지금 지적하신 여론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협약 제정을 통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하고 있고요, 다만 방송산업에 대한 국별 보호조치라든지.....

○천영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위원회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근본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난해 11월에 우리 정부가, 그것은 방송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위원회도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버텼으면 절대로 우리

정부에서 이걸 낼 수가 없습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천 위원님, 대한민국의 미묘한 입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영세 위원** 미묘한 입장이 뭐예요? 미국의 압력 때문인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아닙니다. 한류 등을 통해서……

○**천영세 위원** 한류하고는 전혀 연계시키면 안돼요. 한류라는 것은 스스로 그 나라가 열어 놓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왜 통상압력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려고 그래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영화라든지 드라마, 뮤직비디오 이런 것이 해외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만일……

○**천영세 위원** 미안한데, 통상압력이라는 것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나오면서 반미감정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래서 저희가 대단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하여튼 이 자리에서 논쟁할 시간은 없는데 정말로 방송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를 지키는 문화정책의 기틀이 유지되느냐 완전히 무너지느냐 하는 관건이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시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를 지키고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 우리의 문화산업이 수출산업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천영세 위원** 교역의 대상으로 문화를 자꾸 보시니까 그렇지요. 교류로 보셔야지요.

○**위원장 이미경** 천영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맙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나머지 질의와 이와 관련된 질의도 서면으로 할 테니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지난 1일 방송위원회가 KBS 경영합리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안민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그리고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재원 마련,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을 여러 차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위원회 입법의도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재 입법예고안에는 찬성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입법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좀더 폭넓은 사회적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와 재원 확보를 위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KBS의 공영성 강화에 대한 문제는 계속 추구하는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적절한 대안 모색을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저희가……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동일한 질의에 유사한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네요.

작년에 미디어언론정책의 최대의 화두가 신문 개혁이었다고 그러면 2005년의 최대의 화두는 방송·통신융합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개혁이 주로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청산하고 정상화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방송·통신융합은 미래의 문제를 어떤 틀로 바라보고 소화할 것이냐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준비를 더욱더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대제 장관은 규제기구를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급한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바로 방송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위원장 노성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제3기 방송위원회’ 그렇게 타이틀이 붙은 위원회는 종식이 돼야 될 것 아닌가. 내년 5월이 임기인데 내년 5월에는 적어도 방송통신위원회 이름으로 새로운 통합기구가 발족돼야 된다. 지금 논의를 상당히 진전시켜도 타임스케줄을 역으로 환산해 들어가면 충분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느 부처의 이기주의 이런 것을 떠나서……

○**안민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방송위원회의 일방적인 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있지요. 그러나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의 큰 틀에서 마련이 돼야지 일방적인 방송위원회 안 가지고는 상대가 있고……

○**안민석 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인 일정과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송위가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문광위 차원에서도 필요한 협력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적극적인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력이 대학의 언론학부 교수, 언론학회장 그다음에 민언련 정책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까지 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 수용자편에서 많은 활동을 해 오신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융합정책에 대해서 저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시키는데 방송위원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의 신민적 가치를 산업논리를 극복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방송위원회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독자적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많은 원군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실제로 방송법에 의해서도 KBS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액세스 채널, 액세스 시간이 있고요, 저희가 시청자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방송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시청자편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여러 모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3자가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그쪽으로 더 많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좀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정병국 위원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어떤 특별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방송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청자 권익 등 공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위성 DMB 사업 같은 경우 업체 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방송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시청자 권익을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정병국 위원** 방송정책 전반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앞서서 이계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지방방송을 남발시켰던 측면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제 와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민방이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강제적으로 계속 존속시키려고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그야말로 시장구조에 맡기고 있든 없든……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 민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의 특화된 문화를 창달하거나 하는 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지역 단위로 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민방을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이제는 특화시키고 특정화시켜 가지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그 지역 문화와 연계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송국으로 양성화시킬 것인가,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일률적으로 그냥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한 생각은 아예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KBS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감사원의 지적이라든가 또

는 감사원의 지적을 밑바탕으로 해서 국회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완책으로 내놓으신 것이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정병국 위원** 당연합니다. 방송위원회가 KBS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방법이 단순하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적된 사항 중심으로 미봉책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KBS가 국가기간방송이라고 하면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근본적인 위상 제고를 하고 발전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내놓은 국가기간방송법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 입법예고안을 내놓으면서 문화관광부에 의견을 구하셨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각 부처의 의견을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어떤 측면에서 듣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송법상 보면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합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정책사항입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방송법안을 비롯해 가지고 어떤 법안이 됐건 어느 부처의 안이 어떤지 각 유관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방송법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방송위원회 관장 사항이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부처 의견을 다 들어야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정병국 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가 정부입법을 할 때는 통상 관련부처에 다 저희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방송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방송법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러니까 저희가 원안은 상의 없이 만들었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 그 과정입니

다.

○**정병국 위원** 각 부처의 의견을 듣는데 유독 문화관광부만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만 듣는 게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 어디어디 들었어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전 부처가 다 의견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 어디어디 들어 봤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정확히는……

○**정병국 위원** 지금 문화관광부 한 군데만…… 제가 받은 자료는 문화관광부 안밖에 없어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아닙니다. 재경부, 문광부, 감사원……

○**정병국 위원** 각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은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까.

지상과 DMB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이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 사업자허가 신청하려는 업체들에 이미 대다수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 보셨지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위원들로 선정될 대상자들이 대부분이 기존에 사업 신청을 낸 업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각별하게……

○**정병국 위원**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또 다른 역측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분명하게 기준을 공표하시고 심사위원회를 엄정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심사위원은 사전고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심사위원은 고지할 수가 없지요. 기준은 고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은 지상파 DMB는 반드시 무료로 서비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성 DMB 방송과 관련해 가지고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리십시오. 업체 간의 이해관계, 다툼을 방송위원회가 짐을 지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풀어 주세요. 그것은 시장원리에 맡기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두 위원** 중복된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MBC 주식의 30%를 갖고 있는 정수장학재단은 과거의 부일장학회로부터 불법적으로 찬탈되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을 지냈던 박용기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김지태 씨를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이미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정수장학재단 이사장께서 이사장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왜 사퇴하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어떻게 짐작하세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박근혜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했지 않았겠느냐……

○**민병두 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정수장학재단 설립 자체가 불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불법성을 인정해 가지고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 6년간 약 10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다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때문에 그만두는 것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 애매모호함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일보 노조 같은 데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성명을 발표하고 유족들도 항의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러한 애매

모호함 때문에 박근혜 대표도 또 다른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또 다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방송위원회가 MBC 정체성 문제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직만 사퇴하고 박근혜 대표와 가까운 이사들로 이사회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사회 자체가 완전히 해산을 의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 주인한테 이 장학재단을 돌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이사회 자체가 박근혜 대표가 임명한 이사들은 전원 교체되고 또 다른 분들로 구성되는 경우 등 앞으로의 경로를 세 가지 정도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친 박 이사진은 그대로 구성하고 장학재단을 계속 간접적으로 소유한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부산일보 노조나 MBC나 이런 쪽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당장 MBC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결국 사회환원 절차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MBC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현재와 같은 친 박 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이사회가 사회환원을 결의한다거나 이사회가 전면 교체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MBC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사실 MBC가 위상에 변화를 주고자 내부에서 상당한 구성원들의 찬성하에 그러한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정수장학회가 30%의 소주주지분을 갖고 있는 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수없이 정수장학회 박근혜 이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번 접촉을 갖고 장학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시드머니만을 MBC가 주고 모든 것을 MBC 내지는 국가에 조금……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시면 어떤가……

그런데 본인은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주위에서…… 특히 정수장학회 이사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막강합니다.

○**민병두 위원** 수천억 되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그래서 이게 해결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MBC의 정체성은 앞으로도 정수장학회의 소유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험로를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형준 위원님!

○박형준 위원 위원장님, 박근혜 대표하고 혹시 대화해 보셨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저도……

○박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남의 공당의 대표에 대한, 그분의 심정을 얘기할 때는 대화를 했다는지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부담이 돼서 사표를 던졌다는지 그런 것을 확인도 안 해 보신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그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러면 나중에 박근혜 대표 축하하고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셨다고 했는데……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 뒷부분……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음에……

○민병두 위원 제가 시간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 문제를 갖고 직간접적으로 접촉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접촉하신 적도 있어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도 하고…… MBC에서는 사장이 바뀔 때마다 수도 없이……

○위원장 이미경 과거에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그런 것이지요? 과거에 사장 하실 때 하셨다는 얘기 같이 들었는데요.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 최근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1월에 한 번 얘기했고 또 지난 2일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가상광고,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광고, 간접광고 업무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현행 방송법에 보면 방송광고의 운영·편성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 기본 직무로……

○정종복 위원 기본 직무 맞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정종복 위원 방송법에 보면 27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조1호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장관과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방송광고의 운영·편성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업무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업무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관여를 합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잘 모른다고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부서의 관료들이 그렇게……

○정종복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장관이 이런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왜 방송위원회의 일을 문화관광부에서 관여하느냐 이렇게 항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자기 밥그릇도 못 찾아 먹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지당한 얘기를……

○정종복 위원 법에 정한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는 뒤에 알아보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자기 밥그릇을 찾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래서 내부적으로 장관을 만나기도 하고……

○정종복 위원 됐습니다. 뒤에 항의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혐의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개별적으로……

○정종복 위원 개별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장관을 만나거나 차관을 만나거나……

○정종복 위원 그것은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해야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의 부서에서 방송위원회 직무에 관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챙길 때 방송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니까 방송의 공영성·공익성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벌써 방송위원회의 태도가 이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합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정종복 위원 자꾸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는…… 직제에 광고가까지 지금 문화관광부가……

○**정종복 위원** 법으로 얘기합시다. 어떻습니까? 법에 어긋나는 일 맞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정부조직법상에……

○**정종복 위원** 정부조직법상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광고정책은 문광부의 광고정책과가……

○**정종복 위원** 방송법이 특별법 아닙니까?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야지요. 방송위원회 직무를 정식으로 정해 놓아 줬고,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해야 할 직무를 또 방송법에 정해 놓았고, 그러면 방송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행사를 해야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정종복 위원** 2001년도 2003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그렇습니다.

○**정종복 위원** 문화관광부에서는 그에 앞서서 2000년 초에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일반 시청자라든가 언론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정종복 위원** 그런데 반대여론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거론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이효성 부위원장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정종복 위원** 자꾸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위원장께서 대답하세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사실 내용적으로는 우리나라만이 중간광고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광고에 대해서 방송위원회도 신중하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종복 위원** 좋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정리하십니까?

중간광고와 가상광고에 대해서 방송위원장의 입장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지금 저희 결론은 신중하게 가는 것입니다.

○**정종복 위원** 신중하게 어떻게요?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종복 위원** 가상광고도 그렇습니까? 가상광고는 지금 현재 법에 금지되어 있지요?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정종복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야지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됩니까? 앞으로 뭐든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 iTV 취소 결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iTV 취소 이후에 벌어질 사태를 충분히 예상했다, 이효성 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iTV 취소요?

○**박찬숙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박찬숙 위원** 재허가 추천 거부를 예견하지 못했다, 노성대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정말로 모순과 무책임이 느껴집니다.

iTV 정파로 인해서 1300만 시민들이 시청권을 박탈당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실직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 재허가심사를 받을 당시 기준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경영실적이 이번 대상 기간보다 더 나빴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무구조가 최근 3년간 굉장히 호전되었고, 또 하나 작년엔 2005년부터는 재무구조가 훨씬 개선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에서 역외재송신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재정능력이 부족해서 재허가를 해 줄 수 없었다는 이유가 맞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그렇습니다.

그 전후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iTV의 경우에는 재허가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자꾸 노사가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고 경영계획도 대단히 미비했기 때문에……

○**박찬숙 위원** 잠깐만요, 극도의 대립을 하고 그

래서 2004년 10월 6일 오후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방송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대주주, 경영진, 노사 이 3자 간 합의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적이 있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박찬숙 위원** 하여튼 속기록을 보내 주세요. 분명히 이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가조건에 들어 있었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박찬숙 위원** 속기록 제출해 주세요. 시간까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박찬숙 위원** 그 요구서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숙 위원** 협찬과 간접광고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 이것이 세 번째 취소이유입니다. 그러면 iTV 말고 다른 방송에서는 이것을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iTV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위반을 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너무 많은 것의 비율이 얼마인지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SBS문제입니다.

SBS 재허가심사 때 3년 전 여건하고 이번 여건하고 달라졌습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재허가조건이 달라지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세전이익 15% 환원문제가 SBS 재허가 추천의 핵심이지요? 그렇다면 SBS는 이미 2001년에 재허가를 취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지 않고 이번에 이것을 요구조건으로 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재허가 과정에서 과거에 SBS가 약속했던 사회환원 15%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박찬숙 위원** 그때도 확인하지 못했고 지금도 확인하지 못했다면 방송위원회가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그동안 미출연금액이 690억 원으로

평가되었지요? 그런데 300억 원만 부과했는데 왜 깎아주었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깎아준 것이 아니고……

○**박찬숙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꼭 거둬야 될 것이 그만큼이라면 그만큼을 다 거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근거규정보다 SBS 측의 어떤 능력이란지 방송사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박찬숙 위원** 방송사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iTV의 역외재송신을 2005년 1월부터 허가해 주고 그것도 살려야 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아닙니다. iTV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SBS의 경우에는 노사가 화합을 해서, 단결을 해서 강원민방과 함께 재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찬숙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서면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3년 전 재허가 때나 지금이나 회사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임기가 3년마다 바뀌는 방송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고무줄처럼 돼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BS문제입니다.

아까 노성대 위원장께서 “소박한 입장에서 이것에 접근했다. 우는 소리가 아주 많아서 놀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방송위원장의 답변으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감사원, 재경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에게 방송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심도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박한 입장에서 접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여러 가지 KBS 쪽의……

○**박찬숙 위원** KBS 쪽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고, 참여정부의 감사원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기관의 입장을 다 수렴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감사원이 지적—그 지적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을 다 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면 이것은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많은 기관에 회부해서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다면 확고한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12일로 끝났지요?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는데 다음달 초에 또 방송위 주최로 공청회를 열고 KBS 측과 계속 협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법을 만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어차피 절차적으로 저희가 최종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과정이 그 절차에 있는 것이고요.

○**박찬숙 위원** 그렇다면 방송위원회가 입법예고했던 사항이 거의 대부분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했고 공론화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방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적당히 법을 만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상당부분은 동의……

○**박찬숙 위원**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법은 엄격하게 집행됩니다. 고무줄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 김재홍입니다.

방송위원장께 박근혜 한나라당대표의 정수장학회 이사장 겸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행히도 사의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정당원으로 현역 정치인이 MBC 방송사 주식의 30%를 갖고 있고 부산일보의 주식 100%를 갖고 있는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이 위법이나, 아니냐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위법성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정수장학회의 이사로는 남아 있을 것 같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사로 남아 있는 것은 방송법상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

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정수장학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법상 박근혜 대표가 그 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부일장학재단을 강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진상규명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따라서 진상규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언론관계법상 위법이나,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54페이지, 55페이지를 보면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어, 영어, 수능교육, 초·중등교육, 환경·자연보호 이런 것은 하나의 공익 방송 분야로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회적 소수대변에 장애인, 노인, 농어민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민은 그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기에 이렇게 소수 대변으로 채널을 정하시는 것인지 간단히 밝혀 주시겠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이효성 부위원장께서……

○**김재홍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하시더라도 기본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소위 KBS의 액세스 프로그램 등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민, 전체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방송을 염두에 두고서 한 것입니다.

○**김재홍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사회, 시민운동, 시민단체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한 것 아니냐, 나쁘게 해석하면 그것을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이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야말로 시빅 저널리즘, 이효성 부위원장이 교수시절에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마는 참여민주정치, 아까 말씀드린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시민단체를 위한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이것은 이런 차원의 소수대변 채널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모든 시민

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채널로 결정을 하시든가, 아니면 공익채널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과는 격이 다른 것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국채널의 단순 재송신 문제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 대해서 방송위원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몇 년 전에 외국채널의 단순 재송신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10%에서 20%로 낮추었지요? 그래서 지금 외국채널 중에서 전문화시켜 가지고 완전히 한국시장을 공략하려 나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한국에 재송신 하기 위한 위성을 따로 지정해서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무슨 양주, 담배 등 우리나라 방송정책으로는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다 걸러지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것이 100분의 20까지 허용되어 있다는 말인데 이것 괜찮은 것입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저희가 외국방송 재송신의 문호를 완전히 활짝 열어두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기브 앤드 테이크가 되도록 가급적 저희 쪽의 방송이 상대국에 나가고 그런 것을 촉구해 가면서……

○**김재홍 위원** 아까 존경하는 천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송콘텐츠를 교역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교류라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방송에 대해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정책상 우리의 방송매체, 방송사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넣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송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약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뭘뭘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뭘뭘 해야 된다.’ 그러고는 처벌조항이 없어요.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중간광고,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보내 주시고 방송·통신융합방안, 방통위원의 구성방법과 인선기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것이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이것 다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자료 가운데에서 컨소시엄 지분 5% 이하 참여자의 업무제휴형태에 대해서 자료공개를 안 하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박형준 위원** 왜 자료공개 안 하세요? 저는 자료공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5%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요.

○**박형준 위원** 이것은 왜 자료를 받지 않으세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박형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상파 DMB 사업자가 여러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가 되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사위원 구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종의 정치적 컨소시엄 형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SBS 같은 경우 한겨레신문하고 한 다든지 또는 오마이뉴스가 가장 인기 있는 공동사업자라든지, 그에 비해서 소위 비판적인 신문이나 언론은 이번 컨소시엄에 거의 참여를 못 했다든지 해서 지상파 사업자 선정에도 정치색이 투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씩씩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지상파 DMB 사업에 관해서 이런 정치색이 배제될 수 있도록,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컨소시엄 결정되었다 이런 판단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기준과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방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일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상파 DMB는 보편적 서비스 정신에 입각해서 기본적으로 무료화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런 원칙을 끝까지 견지하실 것이지

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박형준 위원** 그런데 KBS 같은 경우 이른바 선택적 유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DMB 서비스 일부를 유료로 제공하려는 듯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입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아직까지 저희 방송위원회 입장은 변한 것이 하등 없고요, 그러나 워낙 개필러를 수없이 갈아야 되는, 수천억에 달하는 비용문제를 가지고 지금 방송사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 소위 말해서 조그만 구멍을 열어줌으로써 결국 지상파 DMB가 나중에 유료서비스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의 638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적자발생이 이미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난 재허가 심사 당시에 KBS가 제출한 경영계획에 따르면 533억이라는 적자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적자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방송위원회가 수용해 주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적자예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 것하고 지금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방송을 위해서라든지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면 모르는데 실제로 광고수입 축소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적자편성이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전략적 적자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의구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영방송으로서 이와 같은 사상 초유의 적자를 낸 KBS 경영진의 무능함과 무책임에 대해서 일단 방송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적자예산이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것이 수신료 인상에 하나의 빌미로 또는 요인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제기되는 근본 원인이 KBS가 어떤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거버넌스 체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합니다마는 국가기간방송법과 같은 법 형태를 통해서건, 아니건 간에 KBS

의 방만한 경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방송위원회 차원에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저희가 아직 KBS 결산서를 못 받았거든요. 아마 오늘쯤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형준 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부위원장님, 지금 위성 DMB나 지상파 DMB 사업에 관해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방송·통신산업의 관점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박형준 위원** 실제로 위성 DMB 사업과 관련된 단말기나 부품제조업체 또 PP나 콘텐츠 업체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위성 DMB 사업을 전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 그리고 위성 DMB 사업에 대한 허가과정 내지는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 위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방송에 대한 산업적 관점과 공익적 관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인데 위성 DMB나 지상파 DMB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최근 경기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상파 재송신의 문제라든지 지상파 DMB의 유료화 문제도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위원**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방송사업자 법정부담금 산정근거에 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실적이라든가 사업자의 재정실태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된 적정요율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용역결과가 12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나와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는 계획하고 계십니까?

방송발전기금 사업 개선책에 관한 사업계획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발전기금 중 여유자금 운용금액이 719억 300만 원인데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지원 사업 예산은 13억밖에 안 되어서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의 용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용자사업에 관련한 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사업성 기금에 관련된 용자사업의 법적인 근거 마련에 관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봉숙 위원** 그것을 좀 마련해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사업 시행 이후 2003년 집행실적이 50%, 2004년 9월 말 현재 실적이 14.5%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손봉숙 위원** 또 벌금 징수와 관련해서 방송사업자들의 방송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와 그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고 또 새로운 시정권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 평가분석부에 따르면 사업자간담회와 편성책임자 회의를 개최해서 좋은 답을 내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자간담회나 편성책임자 회의를 별로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답을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증액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증액분을 분석했습니다. 5분 가지는 도저히 발표가 안 되는 내용이라서 서면질의 하겠지만,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당초에 1년 계획으로 추진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손봉숙 위원** 그런데 왜 2년으로 늘었지요? 그런데 왜 예산이 2배로 증가했지요? 원래 예산이

57억인데 60억이 더 증가……

○**방송위원장 노성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평당 315만 원짜리로 계약했던 것이 1년 만에 평당 402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뭔지, 건축을 하는 데 방송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한 비용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미디어센터가 방송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부산은 왜 1차 계획에 건축음향설계비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음향설비 비용은 책정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 양쪽 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손봉숙 위원** 그리고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얼마나 되는지, 어느 지역이 가장 접근권에서 소외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 군소 미디어센터를 많이 설립하는 것이 부산 같이 갑자기 2배로 늘려서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경인방송 후속 대안에 대해서 iTV 법인의 재허가 관련 행정소송과 iTV법인 라디오 방송 상황에 관련한 입장이 준비되어 있는지, 재허가 추천은 정통부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런 행정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혹시 방송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iTV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방송이라는 새로운 방송모델에 신규사업자 허가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시 거기에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허가 심사를 7개월 동안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5일 동안 269개 방송국을 심사했는데 이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 심사가 아닌가,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보광고는 계속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광고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방송과 통신이 통합되는 디지털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방송광고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봉숙 위원** 방·통 융합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가상광고나 중간광고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텔레비전사의 수익이 좀 늘겠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도입하게 되면 방송광고 시장질서가 다소간 문란해질 수 있겠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문란해진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공성에 침해가 좀 발생하겠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일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시장질서 문란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미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무자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심재철 위원** 속기록에 “고개를 끄덕이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이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지겠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심재철 위원** 반면에 시청자의 볼거리는 아무래도 좀 제약이 되는 것이겠고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상파방송의 광고시장에서의 포션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 매체 간 균형발전에 도 다소간에 문제가 있겠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가상광고 이런 것들을 도입할 의지는 있으신 것이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장기 목표로는 그렇게 가

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재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권리라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시고 매우 신중하게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때는 아무래도 철학이 문제인데 국내에서 방송사끼리 쉐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겠지요? 그런 관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방송 경쟁력을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둘 중의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하겠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다면 후자라야 당연한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DMB 분야는 그래도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앞설 수 있는 분야이고 따라서 국내 방송사끼리의 포션, 쉐어 문제는 2차적인 문제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재송신문제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좀 전에 차라리 후자 쪽에 관점을 좀더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방송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무대는 협소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료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도 무료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먼저 방송을 발전시켜서 세계시장에서의 포션, 파이를 키워 놓은 다음에 나누는 방안을 생각하십시오.

○**방송위원장 노성대**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면 그런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적극 검토하겠단……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심재철 위원** 상당히 공감한다…… 그렇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러면 결론이 나버리기 때

문에……

○**심재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편이
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좋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방송법 개정의견을 냈는
데 지금 KBS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최초의 개정의견을 냈을 때 그 입장
은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지금 KBS……

○**심재철 위원** 예, KBS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한 것들을 나름대로 반영해서 의견을
만들었는데 KBS에서 그 점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최초에 만들었던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지금은 그런 의견수렴절차
를 밟고 있는 단계니까요……

○**심재철 위원** 저는 최초의 의견들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iTV FM이 방송은 안 나가고 음
악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음악만
내보낼 바에야 기존의 KBS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이 나가고 있는 것을 수중계방식으로 그쪽으
로 해서 사랑의 소리를 내보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
셔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외주제작 부분에서는 현재 기존
의 지상파방송 3사가 자회사를 차리고 있고 그
자회사에서 만든 것을 받아들여서 외주제작비율
로 치고 있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심재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주제작시장이 훨
씬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방송사가 자회사 시켜
서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외주제작비율을
챙겨 넣는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런데 전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인색하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
니다.

○**심재철 위원** 물론입니다.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식
으로 개선해서 우리나라 외주제작업체를 활성화

시킬 것이냐…… 이것은 바로 콘텐츠시장의 저변
확대로도 연결이 되니까요. 이 점도 검토해서 나
중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소외계층의 접근권에 대해서 수
신기 보급 쪽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KBS를 통해서 기왕에 방송된 자막방송이나 해
설방송프로그램을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프
로그램을 배급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권
을 확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점은
어떻겠는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
오.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시청자단체 지원이 작년
보다는 올해 1억 원 이상 정도로 훨씬 더 강화되
었는데 시청자단체를 선정하는 기준, 그리고 현
재 들어와 있거나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고 있
는 실태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지상파 DMB에서……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자료에는 5% 이상만 죽 나
와 있는데 5% 이하 주주들도 데이터는 있지요?

○**방송위원회사무총장 표철수** 데이터는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데이터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
오.

마지막으로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의도 하고
했는데 방송언어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어 사용
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방송언어를 올바른 표준어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송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방식은 방송위원회 활동
을 강화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
예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서 그쪽에서 이 부분을
작업하는 수도 있겠는데 정책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호 위원** 윤원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좀 드

리고 싶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 때문에 엄청……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음해성 발언, 루머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업자 선정 이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공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높은 도덕성으로 일체의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원호 위원** 방송위원회는 오죽 괴롭겠습니까? 빨리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 개선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매체별로 보면 외국 위성방송을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까지 송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위성방송은 우리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도 아니고 우리 심의규정에 저축을 받는 방송도 아니거든요.

현재 그 심의규정에 뭐가 있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는 원래 10%를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해서 20%로 늘렸습니다. 저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외국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원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방송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외국방송채널을 주로 보는 주부들도 참 많은데 대낮에 주부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보면……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유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유익한 것도 많지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가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일부 여성단체들의 그런 지적과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재송신 승인에 유효기간을 뒤서 문제가 발생한 외국 위성방송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그것을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윤원호 위원** 제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 방송도 해외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방송내용이라든가 국제 광고의 무분별한 시행 이런 것은 저희가 규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서도 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P-TV의 영역다툼이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제3자가 보면 영역다툼이 되겠는데 저희 방송위원회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그렇습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저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방송이니까요.

○**윤원호 위원** 방송인데, 방송이나 통신이나 하는 것을 갖고 엄청 영역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저희는 방송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밥그릇싸움이라고 그러니까요.

○**윤원호 위원** 또 SO하고의 형평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가 보기에 IP-TV는 기본적으로 SO와 똑같은 종합유선방송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SO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서비스라면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원호 위원** 중계유선을 보면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저가의 매체로 소외받고 있는 공익적 PP채널과 공중과 재전송을 주 업무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윤원호 위원** 케이블방송은 전국화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권 확대를 통해서 IP-TV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IP-TV는 그 기술적 연구를 최대한 살려 주는 방향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정책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래서 저희가 IP-TV를 비롯해서 통신선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송 같은 것들에 대해 보다 산업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별정방송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통부와 의견이 충돌해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원호 위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계속 협의를 하고요……

○**윤원호 위원** 그다음에 방송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법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방송의 독립성이나 특수성, 공익성을 고려할 때 좀 무리한 추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청회를 한다니까 다행하게 생각합니다만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 정청래입니다.

우리나라 동해가 일본해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자는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방송위원회 위원장님, iTV가 이번에 PD연합회에서 주는 방송상 탄 것 알고 계십니까?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잘했으니까 받았지요.

○**정청래 위원** 의미 있는 것이지요? iTV 노조원들의 공익적 민영방송을 위한 몸부림에 대해서 PD연합회에서는 상까지 주었습니다. 지금 정방이 된 지 오늘로 60일째를 맞고 있는데 방송위원회에서 정상화를 위해서 한 노력이 있으면 밝혀주시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방송위원회에서 노력을 한 것이 있으면 몇 가지라도 소개해 주세요.

○**방송위원장 노성대** 방송위원회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은 iTV 쪽에서 더 잘 압니다. 저희가 구태여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서너 차례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지어 언론노조 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정청래 위원** 방송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iTV 노조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iTV가 이렇게 파국을 맞으면 결국은 경기·인천 지역 시청자 주권의 침해거든요. 저는 하루빨리 iTV가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은 지상파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최초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그러한 결단만으로 iTV가 정상화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iTV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가 iTV 노조원들을 만나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평상시 임금의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생활고에도 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런 아픔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TV 법인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기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심사숙고하고 공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재허가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에, 처분에 하자가 없어서 패소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TV서울에 대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교통방송에서 하는 지방자치생활정보 전문케이블방송 TV서울이 개국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광역단체는 정당공천을 받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생명인 독립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편성위원회의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그 대목에 대해서 방송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공정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등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니까 편성위원회의 준비된 상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위원회에서 KBS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방송위원장 노성대** 듣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견문발견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모기를 잡으려고 검을 빼든다,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KBS도 지금 경영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송에 대한 공정성, 독립성,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방송위원회에서 지금 입법예고한 것은 너무나 과하다, 그리고 자칫 그 진위를 의심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공청회도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 한 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방송법과 관련해서 노동계에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방송철학 부재가 낳은 왜곡된 시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방송위원회는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결국 이번의 방송법개정안 이것이 방송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라고 노동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송위원회를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된다, 아까 '정권의 하수인' 그 맥락하고 같습니다. 그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정부의 입김을 전달하는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방송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도중에 노웅래 위원, 천영세 위원, 정병국 위원, 박찬숙 위원, 김재홍 위원, 최구식 위원, 손

봉숙 위원, 심재철 위원, 윤원호 위원, 정청래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방송위원회 노성대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경** 한국방송공사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문화관광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사장 정연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KBS의 2005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KBS는 지난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대토론과 사회 각 분야의 주요이슈를 다루는 10대 기획을 잘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심층뉴스를 강화하고 예방적 재난방송으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공영성과 공익성,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1TV에 이어 2TV도 공영성지수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뉴스와 다큐멘터리, 드라마, 연예오락프로그램 등 모든 장르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함으로써 품위와 재미, 공영성과 경쟁력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냈습니다. 지난해 팀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일 중심의 조직,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변신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일곱 군데 지역국 구조조정으로 지역의 방송역량을 집중시켜 지역국 활성화와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KBS는 6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맸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낸 데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10개에 이르는 채널을 운영하고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교향악단과 국악단을 비롯

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용의 상당 부분이 경직성 경비여서 절감하는 데 절실한 한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광고수입이 목표보다 1558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광고에 수입의 60%를 의존하는, 그래서 경기변동에 극히 취약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에 깊은 고민과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문화관광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예산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광고시장의 동향에 따라서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유동성 경비를 더욱 긴축운영해 나갈 입장에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 아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이른바 토털 리뷰(total review)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KBS 방송지표는 국민감동 KBS입니다. 국민감동 KBS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올해 10가지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광복 60주년 대기획, 경제를 살립니다, 디지털방송 본격 가동, 생명탐구-자연과 인간, 아시아 프로젝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약속, 비전 2080-젊은 한국 프로젝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획, KBS가 한국어를 지킵니다, 평화의 시대를 엮는다 등 10가지 기획입니다.

새해 벽두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 파문으로 문화관광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문화국가가 방송·통신의 융합을 부르짖는 이 시기에 과거 회귀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킨 이유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7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어렵사리 마련한 공영방송의 독립과 자율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려는 움직임이라고 저희들은 경계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번 파문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KBS 임직원은 참으로 귀중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KBS 임직원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애정과 질책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위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격려에 대해서도 KBS 임직원을 대표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말이면 지상파 DMB 사업자 시험방송이 시작됩니다. 이를 기폭제로 디지털방송시대, 방송·통신융합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KBS는 앞으로도 방송계의 만형으로서 디지털방송시대 그리고 방송·통신융합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KBS의 노력에 대해 문화관광위원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추진업무는 이규환 정책기획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KBS 집행기관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동순 감사입니다.

안동수 부사장입니다.

이원균 편성본부장입니다.

김홍 보도본부장입니다.

장유탉 TV제작본부장입니다.

조원석 라디오제작본부장입니다.

홍수완 기술본부장입니다.

정태진 경영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형준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KBS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지난 금요일에 통과했습니다.

○박형준 위원 결산보고서 좀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지금 인쇄 중입니다.

○박형준 위원 그 내용을 지금 좀 볼 수 없나요? 인쇄라는 것은 책자 인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박형준 위원 양이 많습니까? 요약본이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요약본이 없습니다.

○박형준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적자예산과 관련해서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경영진이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결산안이 아니고요,

결산안이 이사회에서 통과한 이후에 이사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 권고안에 경영진이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정확한 표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표현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환 정책기획센터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한국방송공사 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공사의 200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기본운영계획 순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의 임무입니다.

KBS의 임무는 방송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가 되겠습니다.

KBS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현장 중심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 8월 팀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198개에 달하던 직위를 185개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7개 지역방송국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KBS 기구는 사장과 부사장 아래 편성본부, 보도본부, TV제작본부, 라디오제작본부, 기술본부, 경영본부 등 모두 6개의 본부와 정책기획센터, 인적자원센터, 시청자센터, 글로벌센터,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모두 5개의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본부 밑에 하부조직으로 모두 116개의 팀과 임시조직으로 10개의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 대구 광주 등 9개의 지역총국 아래 강릉 울산 목포 등 9개의 지역국이 있습니다. 해외에는 워싱턴, 파리, 도쿄 등 11개 지역에 해외지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KBS의 금년도 총예산은 1조 3142억 원입니다.

총 광고재원의 축소와 매체 간 경쟁심화로 광고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 1조 3718억 원 대비 약 4.2%인 576억 원을 축소해서 책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입 부문은 수신료 수입 5262억 원, 광고료 수입 7129억 원, 기타수입 75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문은 방송제작비가 6345억 원, 시설장비운영비 3664억 원, 기타비용이 3132억 원으로 총 1조 31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인원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은 앞에서 인사드린 대로 사장, 부사장, 감사 및 6명의 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2명 가운데 현원은 9명으로 3명을 결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전체 정원은 5560명입니다. 금년 2월 1일 현원은 5385명으로 전체 정원의 3%에 해당되는 175명을 결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는 방송시간 확대, 디지털방송 실시 등으로 인한 인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팀제 개편 등 조직구조 개혁과 ERP 시스템 도입 등의 업무혁신 작업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정원 범위 내에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시설입니다.

KBS는 본사 외에 부산, 대구, 광주 등 9개의 방송총국과 강릉, 울산, 목포 등 9개의 지역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제작시설은 스튜디오 24개소를 포함한 TV 제작시설 45개소와 라디오 제작시설 38개소가 있습니다.

방송 송출을 위해서 지역별로 송신소 중계소 간이중계소를 운영하고 있고,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전국의 방송시설은 총 437개소입니다. 운영 매체는 총 15개 채널이며 TV, DTV, 위성 각 2개씩 6개 채널과 FM 4개 및……

○이경숙 위원 시설 같은 경우는 좀 생략하고 달라진 내용만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그러면 기본운영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KBS는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선사하며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가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 감동의 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KBS는 한국인의 중심채널 KBS, 변

화하는 KBS, 미래를 여는 KBS를 3대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시청자 제일주의 서비스와 국민경제 제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11개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3페이지 주요 실천과제입니다.

KBS는 시청자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열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생활 패턴의 변화에 맞추어 여가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시청자상담의 One Stop Service를 실시하고 수신료콜센터를 운영하여 시청자의 민원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KBS연차보고서, 경영평가보고서 등을 공표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를 존중하는 방송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가·사회적인 아젠다 설정 기능을 강화하여 한국인의 중심채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 청산', '2005년은 통합과 개혁으로', 'KBS대토론-국민과의 약속', '국가이미지 향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방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전 정보 제공과 예보기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울러 남북한의 화해·협력 확대를 위한 남북방송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국민경제 제도약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찾는다' 등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편성하고 경제 관련 특집 및 보도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경제현안과 정책을 진단함으로써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뢰받는 뉴스, 사랑받는 방송입니다.

KBS는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논평을 바탕으로 뉴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보도본부는 저널리즘 대기획 공모, 뉴스자문단

과 시청자 참여 코너 운영을 통해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KBS형 저널리즘을 구축하겠습니다.

스포츠 부문은 주5일 근무제 본격 실시와 웰빙 트렌드 확산에 따라 생활스포츠 및 레저스포츠 뉴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양·다큐멘터리 부분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대장정 '한반도 평화프로젝트'를 방송하고 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 '한국인 최초 우주인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KBS 스페셜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드라마 부문입니다.

드라마 부문은 고품격, 고품질의 TV영화를 제작하여 KBS 드라마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드라마페스티벌에 대한 출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지속적으로 방송하여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연예·오락 프로그램 부문은 '2005 한중가요제', '한중일 평화콘서트' 등 국제적 대형기획 이벤트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한류열풍을 이어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외주제작 부문은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외주제작진에 대한 제작·기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외주제작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팀제 정착을 통한 일중심 조직 완성입니다.

KBS는 팀제 정착을 통한 KBS의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일과 현장 중심 조직 육성을 목표로 보도 부문은 취재·제작의 분리를 통해 취재역량을 확충하고 제작 부문은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보장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제 전환에 따라 탄력적인 정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팀제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평가보상시스템 정착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보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영목표와 연계된 구체적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목표관리 기반의 평가지표를 도입함으로써 경

영목표, 사업계획, 평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최종 고객인 시청자의 평가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수용자 평가를 새로이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등 일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업무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자율경영체제의 기반 구축, 디지털 종합정책 수립, 계열사 운영 효율화 등 업무혁신을 통하여 KBS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총원가제를 도입하여 한정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 목표를 경영목표 및 평가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자율경영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진화하는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종합적인 매체전략 및 채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신규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선형편집기 도입 확대, 디지털콘텐츠 확대 등 제작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도 착실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밖에 HD프로그램 제작 계획과 연계하여 수원센터의 기능 활성화를 추진하고 계열사 운영을 효율화하여 자립경영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채용구조 안정화 추진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년간 동결되어 온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채용구조 안정화를 통해 공영방송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KBS는 또한 난시청 지역의 수신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리적 여건에 따른 정보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시청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혁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마케팅을 강화하여 수익모델 다각화를 통한 신규재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멀티미디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DMB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디지털멀티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정부의 HD제작시간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HD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제작시설과 송신시설의 디지털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DMB 본방송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제작·송출·송신망 등 DMB 인프라를 구축하고 DMB 방송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이동수신 매체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1·2TV의 데이터 본방송을 실시하고 영상 오디오 등 방송콘텐츠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함으로써 뉴미디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KBS 브랜드 가치의 세계화입니다.

KBS의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거점지역에 KBS World 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아울러 현지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글로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KBS 채널이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프로그램을 고급화하여 국제상 수상 기회를 늘리고 해외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지역을 다변화함으로써 KBS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24페이지 지역방송 활성화입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로컬 제작 비율 상향조정과 총국 중심의 자율운영체제 정립 등을 포함하는 지역국 구조조정 후속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KBS가족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밀착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KBS 대기획으로 KBS가 2005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프로그램들입니다.

모두 열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방송사 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방송의 상업화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의 상업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KBS는 국가기간 방송으로서의 방송의 중심을 잡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에 따른 HD 방송시간 확대, DMB 본방송 실시 등 방송의 디지털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내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과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KBS의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KBS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장님, 조금 전의 인사말씀 자료 복사해 가지고 나눠 주시겠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이사회 권고사항 말씀이시지요?

○정병국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하신 인사말씀이요. 아까 원고를 가지고 읽으셨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정병국 위원 그 원고를 복사해 가지고 나눠 달라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사회 권고사항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정병국 위원 권고한 내용을 아까 같이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결산 이사회 권고사항 부분입니까?

○박형준 위원 예, 권고사항을 그냥 복사해서 주

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럴까요?

○박형준 위원 예.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정병국 위원 그러면 나눠 주세요.

○위원장대리 **우상호** 먼저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갑 최구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적자액이 638억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최구식 위원 최고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심경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매우 송구스럽습시다.

○최구식 위원 이런 대형 적자가 KBS 역사에서 있던 일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IMF 직후에 500억 원이 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600억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최구식 위원 2003년 흑자액이 대개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2003년이……

○최구식 위원 288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최구식 위원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를 타고 1032억 흑자 이렇게 되네요. 1032억, 288억, 마이너스 638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취임하신 게 언제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2003년 4월 30일입니다.

○최구식 위원 일반 회사에서 이런 경영적자가 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왜 그런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는지 우선 원인을 살펴야 되겠지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경영진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요.

○최구식 위원 저희들이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개 아는 일들입니다. 이런 큰 적자를 내는 회사가 한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옆에 친구로 가지고 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휴렛팩커드에서 아주 세계적인 스타경영인이 책임을 지고 그만두시는 일이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크게 말해서 경영진 탓이거나 혹은 직원 탓이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KBS 장사하지 말자라고 권력이 시킨 것도 아닐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하나의 요인이 결정적으로 적자를 발생시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구식 위원** 사장님 보시기에는 경영 쪽과 조직 이 두 개를 나눠놓고 볼 때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는 그렇게 양분해서 보기보다는 그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두 가지 있었다고 봅니다.

○**최구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지난해에 경기가 잘 아시는 대로……

○**최구식 위원** 경기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또 뭘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래서 광고가 당초 예상보다 거의 1600억이 미달되었습니다.

○**최구식 위원** 다른 회사들도 있지요? MBC SBS도 있지요. 그쪽 회사들도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광고시장에서의—저희 KBS 2텔레비전이 광고를 합니다마는—광고 패턴을 보면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광고가 줄어들 때 KBS 2텔레비전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패턴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스카이라이프가 자본잠식이 되면서 저희들의 투자지분에 대한 감액손이 한 73억이 됐고요. 연합뉴스도 한 4억이 됐고……

○**최구식 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테네올림픽하고……

○**최구식 위원** 사장님, 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최구식 위원** MBC는 급여 10% 삭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노사가 합의를 해서……

○**최구식 위원** 사장님으로서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일단 저희들 올해 예산은 임금 동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저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절한가는 더 깊은 검토와 고뇌를 하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사상 초유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사퇴할 생각 없습니다.

○**최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는 적자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 김재홍입니다.

정연주 사장님, 작년에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굉장히 피로우셨는데 KBS의 광고수입 적자폭이 예산 대비 얼마인지, 1600억 정도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거의 1588억입니다.

○**김재홍 위원** 예산서상 다른 비용을 줄이지 않았을 경우 1300억 정도는 적자가 났겠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렇습니다.

○**김재홍 위원** 지금 적자가 638억 원이면 역설적으로 육백육십억 정도의 비용절감 성과를 거두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지난해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긴급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57억의 비용절감을 했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중에서 제일 성과가 있었던 비용절감이 어떤 분야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BS 예산은 대부분 경직성입니다. 그래서 어디의 돈을 막 자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운영비 그렇고, 국책방송 수행이 그렇고, EBS 지원 그렇고,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데……

○**김재홍 위원**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중에 손을 좀 댈 수 있는 것이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재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BS 적자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일차적으로 KBS의 재원구조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재흥 위원** 공영방송의 재원구조가 광고수입이 50%가 넘어가지고서야 어떻게 공영방송 노릇을 하겠습니까? 광고수입과 수신료 수입이 거꾸로 되어 있다, 거꾸로 되어 있어도 굉장히 거꾸로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 KBS 개혁에서 수신료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해서도 촉구한바 있고 국감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KBS에서 마련한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KBS 내부 개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원구조의 왜곡 말고 구조, KBS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인건비, 또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개혁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솔직한 평가를 좀 해 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직도 추가로 더 개혁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저희들이 했던 팀제 도입과 일곱 군데의 지역국 기능조정은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말 큰 부분을 했다고 보고요, 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누적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신료 비율 말씀은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과 같은 재정구조를 가지고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바깥의 경제상황과 광고상황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어서는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재흥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 바이고요, 존경하는 한나라당 동료 위원님들께서 국가기간방송

개념을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해 나가려면 그 자세한 내용은 토론이 필요하되 전제조건으로 재원구조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데 여야 위원들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려면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내부개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말 정치인으로 매우 어려운 주문을 합니다마는 뼈를 깎는, 작년 감사원 특감에서 KBS 내부에 과도한 인건비, 공기업과 같은 나누어 먹기식의 복지제도가 온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좀 어렵더라도 노조와 상의해서 수신료를 올려도 누가 반대하지 않을 만큼의 내부개혁을 강력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팀제를 어렵게 도입하셨지요? 그러나 지금도 참가족이 있고 내부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참가족은 없어졌고요 다 현업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김재흥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멀티미디어 서비스 확대 부분에 뉴미디어에 적합한 뉴스콘텐츠 제작 및 재가공이 있는데 이것도 KBS가 기본적으로 담당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렇습니다.

○**김재흥 위원** 저는 그것이 맞을지 회의적입니다. 그렇잖아도 KBS 조직 비대화, 기구 비대화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외주제작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외주제작사에 맡겨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일단 초기에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특히 지상파 DMB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축적된 방송기술을 활용……

○**김재흥 위원** 필요한 역할은 KBS 본사가 하되……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외부로 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초기단계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김재홍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공부한 것으로는 지상파 DMB가 도입되면 지상파 DMB의 콘텐츠는 지금까지 해 오던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사의 30분 이상, 4, 50분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지요. 이동단말기를 가지고 시청하는 DMB 프로그램은 10분, 길면 20분 이내로 짜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제작해 오던 대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외부제작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차원의 DMB에 걸맞는 콘텐츠 제작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큰 방향에서 KBS는 중심역할은 하되, 필요한 역할은 하되 그런 방식으로 디지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 작년 12월에 수신료 인상 방안과 관련해서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정종복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들어보면 공영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수신료를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자구노력을 하고, 자체적으로 내부개혁을 하고 난 뒤에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해야지 뭔가 자꾸 거꾸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사정이라든가 그동안의 KBS 자구노력을 보면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말은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많이 받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감사원 지적 받은 중에 상당부분은 이미 다 실천했고요,

또 감사원 지적 중에는 과거 3, 4년 전의 일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개선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KBS를 정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특정 정파의 방송으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직도 KBS 독립성과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장님이 방금 웃으시면서 아니다 하는 식으로 표정을 지으셨는데 안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습니다. KBS 수신료를 올리기 이전에 KBS가 먼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책을 통해서 공영성을 회복하고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국민들은 무조건 응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KBS가 먼저 잘해라, 잘하고 나면 KBS 수신료 올려주겠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국민의 소리입니다.

최근의 편파방송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생방송 시사투나잇’에서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 약칭해서 미발추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느냐 하면 90년도에 국공립사범대학교 학생 우선 교사임용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으로 현재까지 임용이 안 된 미발령자가 7000여 명 되는데 시사투나잇에서는 700명밖에 안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사장님께서 그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 한번 보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봤습니다.

○**정종복 위원** 대단하지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편파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최근 2월 13일에 KBS 1TV ‘취재파일 4321’에서는 3월 3일 개국 예정인 TV서울의 교통기상캐스터 선발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TV서울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KBS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들 취재진에서는 정확한 제보와 취재에 따라서 보도를 했다고 그렇게……

○정종복 위원 TV서울의 해명을 듣고, 또 확인을 하고 방송을 하셨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 취재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정종복 위원 TV서울에서는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것은 TV서울의 주장입니다.

○정종복 위원 아니, 확인은 해 보셔야지요. 그 기사내용에 대해서 방송 전에 확인을 해 보셨는지 그것만 한번……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종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알아보겠습니다.

○정종복 위원 지금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해서 하는 방송이 공영방송의 의미는 뒤로한 채 계속 이렇게 특정세력,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편향된 보도를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는 신물을 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의 시사투나잇 내용이 대부분 정치·정치인 비판, 사회비판입니다. 물론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너무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편향적으로 안 좋게 보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정말 살기 어렵다 하는 이마당에 계속 부정적인 보도만 해서 되겠느냐, 다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도 좀 방송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 정청래입니다.

KBS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어제 638억 적자가 났다고 보도되었는데 지금 사장님은 1588억의 적자는 광고적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다른 이유는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스카이라이프 투자지분이 10.7%인데 자본잠식이 되었습니다. 그

래서 거기에서 감액손 73억이 왔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제작비 중에서 예년에 없던 아테네올림픽하고 총선보도와 관련된 제작비가 한 107억 정도 났습니다. 그런 것이 합쳐져서 한 250억이 들어갔고요.

○정청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개선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다른 매체사와의 광고경쟁도 치열하고 또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상업 쪽으로도 갈 수 없고 그래서 광고수주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또 적자가 예상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지금 광고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결국은 수신료 인상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경영적자에 대한 질타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뽀족한 수가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결국 KBS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연주 사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팀제라든가 삼진 아웃제, 희망퇴직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 자구노력, 경영혁신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지금 팀제하고 지역국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측정된 절감액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직문화와 조직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KBS가 하고 있는 전사업에 대해서 토털 리뉴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이제는 정말 사업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청래 위원 사장님, 이러한 KBS의 개혁에 대한 성과 그런 것이 데이터로 산출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 때 제가 제기했던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KOREA의 국적 없는 정체불명의 프로그램 'inside edition'은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12월 1일자로 없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2년 계약을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지금 KBS KOREA에서 KBS SKY로 옮겼습니다.

○**정청래 위원** 지금 한 1억 5000 정도 미송금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제 질의 끝난 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S 이사회강화소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잘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11월 초로 당겨서 이사회에 제출하겠다고, 그리고 예산안을 프로그램별·사업별로 짜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천하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지켰습니다.

○**정청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KBS가 국민에게 다가가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방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KBS시청자위원회 게시판에 보면 전화를 받는 KBS 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되어 있는 등—제가 그 자료를 가져왔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VJ특공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너무 선정적인 것 아니냐,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림을 잡아야 되는데 마치 기획한 것처럼 한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KBS 관련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법안도 있고 방송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도 있습니다. 오전에 전문발검이다, 모기를 잡으려고 검을 빼드는 꼴이다, 물론 감사원 지적이 모기나 벼룩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선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지금 방송위원회나 이란데서 제기한 KBS 관련법을 보면 상당히 정치에 예측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방송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KBS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KBS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하려는 어떤 것도 저희들은 수용하기

가 어렵고요.

저는 모든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공영방송으로서 책무와 기능과 존재이유를 밝혀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첫째로 고려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데 현재 방송과 통신이 급격하게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자 지난 국감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 박찬숙입니다.

35, 6년 동안 몸담고 일했던 KBS를 가장 공평한 시각으로 보면서 질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주 사장께서 모두에 방송위원회 방송법 개정 과문을 언급하면서 과거회귀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킨 이유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뜻은 뭡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핵심은 87년에……

○**박찬숙 위원** 민주화 과정에서 얻어진 방송법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때 당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서 제외됐습니다. 시간만 조금 주시면……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포함해서 5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실례를 무릅쓰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감사원 감사를 받고 5월 21일 KBS에서는 임직원 일동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겸허히 수용해서 KBS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 KBS는 이번 감사를 체질 개선을 위한 건강진단이라는 인식 아래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자세와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닙니다. 달라진 것이 아니고 그때 저희들은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적한 사항 중에 저희들이

수용해야 할 그런 것들을……

○박찬숙 위원 그렇다면 그때는 수용해야 될 사항과 수용하지 못할 사항을 적시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그때 이미……

○박찬숙 위원 그때 나중 부분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닙니다. 위원님, 그때 우리가 겹쳐히 수용하겠다고 말한 문건 이외에 구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적시했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렇다면 2004년 10월 26일 방송 위원회로부터 재허가 추천을 받으면서 권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익잉여금의 국고배당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개정하라는 것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해서 경영 효율화하라는 것, 그것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퇴직금 누진제는 지난해 노조와 단체협상을 해서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하고 지금 노사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노사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형법 132조의 부정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자는 것이 있는데 KBS에서는 언론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가 KBS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박찬숙 위원 부정한 뇌물수수나 뇌물공여에 대해서 공무원처럼 한다는 것이 언론인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언론인은 거기서 예외라는 말씀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일반 민법, 형법에서 얼마든지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숙 위원 그것은 임원에 관해서만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니,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의제하는 것은 지금도 반대하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공무원 의제는, 언론인에 대해서 공무원의 덧옷을 입힌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찬숙 위원 뇌물수수하고 공여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하고 KBS의 정체성 훼손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긴 인터뷰를 하셨더군요. 아까 사장 인사말에서 허리띠를 최대한으로 졸라맬음에도 적자를 낸 것이 참 죄송하다고 그러셨고 KBS는 경쟁상대가 이제 NHK하고 BBC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NHK의 신입 하시모토 겐이치 회장이 오늘인가요,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원의 15.8%, 직원은 2%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노조에 제의했는데 정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BBC, NHK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사장이 와서 큰 개혁을 하실 MBC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바깥에 있는 정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박찬숙 위원 죄송하지만 밖의 정황을 고려하실 필요 없이 KBS는 KBS 나름대로의 정 사장께서 외치는 개혁의 잣대로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물론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박찬숙 위원 그러니까 노조에게 제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KBS노조가 “정연주 사장의 무능과 독선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일하는 조합원과 지역방송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방만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사이비 개혁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니까 정 사장 책임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의 질의에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더 잘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NHK를 본받겠다는 분이 신입회장의 임원 15.8% 임금 삭감하겠다는 것은 왜 본받지 못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임원들이 출선해서 깎을 수도 있

고 한데 그것은 노조하고 협상할 때 그때그때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고 해서 그때 가서……

○박찬숙 위원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의지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팀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박찬숙 위원 KBS 변화관리팀에서 한 사회여론조사에 의뢰해 가지고 2월 2일까지 한 3700여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군요. 보니까 한 6 대 4 정도로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의 민주성에서 48%, 47%, 한 절반가량이 잘 됐다 못 됐다 나뉘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업무만족도에 있어서 58.2%가, 팀원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62.1%가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했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팀 간의 업무협조에 대해서 무려 71.8%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이 조사를 보면서, KBS2의 ‘무한지대 큐’ 알고 계시지요? 유니폼 일본 육일승천기 보도된 것, 이것이 팀 간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걸러지는 조직이나 망이 허술해서 이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것은 팀 간 협조가 아니고 첫째는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외주프로그램에 대해서 담당 PD가……

○박찬숙 위원 외주프로그램이라고 해도 KBS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사전 사후 심의가 철저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미경 박찬숙 위원님, 이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사전 사후 관리를 하는 담당 PD가 제 기능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찬숙 위원 한 가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까.

2월 4일 거둬진 과로로 사망한 드라마영상팀의 이주림 씨 아시지요? 유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장이 얼굴도 내비치지 않는가?”

이주림 조합원이 근무한 시간을 보니까 그야말로 과로의 연속이었는데 사장께 전화를 드렸더니 비서실 답변이 휴일에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챙길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이었다는데 좀더 따뜻하고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거창한 개혁이나 구

호보다 앞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조금 팩트가 잘못 전달이 됐는데요, 그전 날, 그러니까 당일 새벽 4시까지 노사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무려 11시간 계속된 노사협의를 끝내고 난 뒤에 제가 좀 지쳐 있었구요.

○박찬숙 위원 돌아가신 당일 장례를 모시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닙니다. 지역이 광주입니다.

○박찬숙 위원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는 것 아닌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무튼 제가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은 제 실책이고요. 유명을 달리한 사우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또 유족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구구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 위원 이미 638억 원의 적자가 난 상태인데 이제 3월 사업허가를 받으면 시험방송에 들어갈 DMB 관련 사업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송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수도권만도 300억 내지 500억 원, 그것은 이동통신사의 협력을 받을 경우고 자체적으로 한다면 900억 내지 1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파 DMB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망이 있어야 됩니다.

○손봉숙 위원 그것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알고 물어보는 건데……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갖춰 놓고 있다는 얘기는 예산이 더 없어도 다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올해 정해져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리고 TU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SKT 유통망과 보조금 지원도 받고 있는데 과연 KBS가 경쟁이 가능할 것인가도 걱정이 되는데 가능한지?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것은 지상파 DMB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상파 DMB의 선택적 유료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료화를 할 경우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돈이 있어야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또 시청자면서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상파 DMB와 위성 DMB의 기술표준방식 차이 때문에 각각 다른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양쪽 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들은 이중부담을 져야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또 기술표준방식을 호환하거나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있는데도 안 하는지, 어떤 쪽인 것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기본적으로 위성 DMB하고 지상파 DMB는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다릅니다. 지상파 DMB가 위성 DMB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국, 브라질, 인도와 같은 큰 나라에는 지상파 DMB가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금방 이야기하신 기술의 융합 문제는 아마 앞으로 핸드폰 안에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듀얼모드가 나올 것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당장 나오지 못하고 다 구입해서 각각 쓰다가 도중에 또 다른 것이 나오면 결국은 업체들만 배를 불리고 소비자로서는 계속 돈을 써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단기적 내지는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영목표를 보니까 제1과제가 시청자제일주의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2004년도 국감 자료에 의하면 총예산 1조 3700억 중에서 열린채널 제작 지원대상은 50명에 불과하고 총 지

출액이 3억 7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0.027%인데 과연 이것으로 말로만 시청자제일주의라고 그러면 시청자제일주의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에 7개 지역국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이번에 또 순천·강릉 방송국의 라디오방송을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닙니다. 7개 지역국 기능조정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 지역국 라디오 채널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1라디오, 2라디오, FM을 다 하고요. 을지국의 경우에는 1라디오 중심체제로 가자, 왜냐하면 1라디오가 뉴스 전문이기 때문에 지역과 밀착된 뉴스를……

○**손봉숙 위원**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순천·강릉 방송국의 2라디오를 폐지하게 되면……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로컬프로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러면 올해 경영방침 중에서 지역방송의 활성화가 대주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방송의 활성화와 지역방송국의 폐지를 어떤 차원에서 읽어야 될지?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선택과 집중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리고 경영 악화라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지역방송국을 통폐합할 계획 같은 것을 이미 갖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 2004년의 광고수입 예상액이 7850억 정도였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박형준 위원** 그런데 6282억이 걸렸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예산을 설정할 때 타당한 예산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고수입이 2003년에 6700억에서 7800억이면 약 1100억을 늘려서 계상하는 것 자체가 좀 허구적인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경비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예산이 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영자로서 한 해의 경기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한 판단이 적정해야 거기에 대한

비용지출도 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산심의를 국회에서 하자고, KBS도 어떤 형태로든 국가 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편성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KBS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방만한 경영실태와 이것이 반복되는 상황을 저희가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구요.

이사회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사회라는 것은 최고 지배조직이지요? 그러면 이사회가 권고했다는 것은 상당한 강제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사회 권고사항에 그대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상반기 이전에 이미 상당폭의 적자가 예상되어 긴축운영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건비, 부채비율이 증가되는 등 재무상황은 더욱 어렵게 나타났고 큰 폭의 적자결손을 보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경영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임” 이것이 이사회 판판입니다. 다른 데 이사회가 아니라 KBS 이사회 판판입니다.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극적인 책임을 완수하는 길은 지금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박형준 위원** 어쨌든 이사회가 경영책임을 묻겠다, 또는 경영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은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실지? 이사회가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실 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편성 자체가 참 허황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4년 6월 예산편성 계획을 보면 2004년에 533억 적자, 2005년에 840억 적자, 2006년에 1189억 적자, 2007년에 1283억 적자…… 6월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11월 예산편성에는—이것은 방송 재허가 심의받기 바로 직전입니다—2004년에는 534억, 1억만 늘려

서 적자예산을 편성했다가 2005년에는 제로, 적자가 없는 것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2006년에는 467억, 2007년에는 713억……

아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기에 6개월 만에 이렇게 몇백억씩이 왔다 갔다 하게 예산편성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신료 인상에만 목을 매다 보니까 KBS가 구조적으로 적자 경영을 계속하면서 수신료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구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디지털화라든지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서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명분이다 이런 적자예산을 편성하니까 결국 수신료 인상을 해 줘야 된다는 논리로 잘못 오용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방만한 경영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경영위에서 그래도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영방송 체제를 더욱 더 확립하는 데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간방송법을 내놨다고 해서 이것을 국회가 통제를 하려고 한다든가 특정정당이 KBS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정말 KBS가 NHK나 BBC와 같은 공영방송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 경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나 정부와 상의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경영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수신료 인상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실경영도 극복 못하고 제도적인 기반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수신료 인상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수신료 인상이라는 목표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 제 말씀이 과했다면 과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다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음모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시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방송위원회 재허가 때 액수하고 처음에 짠 예산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 할 때 처음에 예산 짤 때 광고수입이 이렇게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실책입니다.

○**박형준 위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자회사가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어쨌든 MBC는 2004년에 650억 SBS는 35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고환경이라는 것은, 물론 KBS 2TV의 패러다임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경영에 대한 판단, 광고수익에 대한 판단이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과다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쓰임새를 방만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결산이사회의 심의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C, SBS는 모든 채널이 다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TV, 2라디오, 2FM밖에 광고가 없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 대신에 수신료 받으시잖아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수신료 수입은 4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국책방송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 방송, 국제 방송, 사랑의 소리 방송, 관현악단 운영, 국악관현악단 운영, EBS 지원 이것 전부 합치면 1000억 넘습니다.

○**박형준 위원** 98년에 IMF 때문에 광고가 절반으로 줄었을 때에도 500억밖에 적자 안 났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638억 적자 난 데 대해서 제가 책임 없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한테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국책사업, 국책방송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재원이 지금과 같이 4 대 6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경기상황, 경제상황에 따라 가지고 방송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타격을 받을 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공영방송이라는 공적제도를 갖고 있다면 이에 적절한……

○**박형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유지해 왔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BS의 공영성이라는 것을 KBS 자사의 이익이라는 것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공영성이라는 것은 공영적 기준에 맞추어서 KBS가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지 KBS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기준을 KBS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바뀐 것이지요.

하여튼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주세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뼈를 깎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입니다.

계속 KBS 적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마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2004년도에는 적자가 없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2004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자료 보니까 45억 흑자로 예산 편성을 했고 광고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6월 23일 이사회 때 다시 편성을 했더군요. 이때는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것으로 해서 적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638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내용을 보니까 수입에서는 337억이 덜 들어 왔고 지출은 301억 원이 더 증가가 된 것이네요. 그러면 적어도 수입이 못 들어 왔다고 한다면, 지금 사장께서는 너무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방송제작비는 이사회에 보고할 때는 408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4359억으로…… 그 당시에 경직성 경비는 안 된다고 했고 이미 방송제작비는 4080억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4359억으로 늘어났고요.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사업외비용 등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2005년도도 광고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하고 6개월 만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어디서 짚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KBS 측에서는 이사회를 강화해야 된다, 이사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외부에서는 이사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이것을 감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KBS가 자기 논리를 가지려고 한다면 이사회에서 적어도 6개월 전에 보고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든가 아니면 이사회에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설득력이 있다고 생

각이 드는데 현재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지난해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된 부분은 하반기부터 광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지난해 1·2월보다 광고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마는 실제로 3·4월에 광고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3·4월 지나면서부터 기대했던 만큼 광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신 이사회 기능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87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풀릴 때도 그랬고 2000년 통합방송법 만들 때도 그랬고, 이사회의 기능을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분리·독립된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대로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사무국을 두었고 3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예결, 3권을 가지고 있고 사장, 감사에 대한……

○**이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논리를 가지려면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보니까, 사장님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결국은 KBS가 공적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지원금이 있든가 아니면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사회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사회의 권고 내용에는 정부지원금이 있어야 된다는 수신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집행부하고 이사회가 똑같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에 대해서도 이사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논의를 해서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 것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BS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의 핵심 중의 하나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80년대에 없어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방송위원회는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KBS의 독립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 방송법안을 내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것은 KBS 측과 저희 측의 인식이 다른 것인데 저희 측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한 의견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과거와 지금 상황은 다르다, 물론 과거에 정부 또는 정권이 방송을 장악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장악이라는 차원에서 본 것이 아니고 KBS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공영방송,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KBS가 그런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했고 같은 국가기관으로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상당한 정도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고 또 KBS 측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랐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87년 11월 28일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할 때 KBS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제외한 이유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부 관여를 축소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동 공사를 제외토록 함” 그러니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포함이 되면 어차피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기획예산처와 소관 부서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저희들로 봤을 때는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종의 정부기관의 간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대한 간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87년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그것을 되돌려 놓겠다 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아무래도 방송은 보수나 진보 어느 쪽에도 속해서는 안 되겠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보도부문 보니까 기획취재 기사가 아무래도 과거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제 관련 기획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작부문 같은 데는 완성도도 떨어지고 균형감각이 부족한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예들이 조금씩 있다고 그러던데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들은 오히려 지금 팀제 이후에 각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에 적자가 났는데, 사장께서는 회사경영의 책임자이시지요? 그러면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책임을 어느 정도로 느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적자 발생한 것을, 책임회피가 아니고 매우 구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많은 것이고 구조적인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회사경영의 책임자로서……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어쩔 수가 없다라기보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절절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이 구조를 어떻게 제대로 된 구조로 바꾸어 놓을 것인가, 그것을 임기 중에 다 하는 것이 제가 맡은 책무가 아닌가 그런 다짐을 거듭 하게 됩니다.

○**심재철 위원** 한 조직의 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경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도 68억도 아니고 638억이나 큰 적자가 났는데 최소한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단히 죽을죄를 졌습니다’ 이런 정도의 진솔한, 통절한 책임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어떤 적절한 시기와 방식이 좋을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구조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는 요인으로 이렇게 넘겨버리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탓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래도 바뀌어지는가 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것 아닙니까?

‘구조적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638억 적자를 낸 책임자로서 정말 유구무언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저런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매우 구차스럽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다만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KBS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드린 설명이 마치 제가 내 탓이오 해야 할 부분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면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자를 핑계대서 수신료를 인상시키려는 계획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적자를 핑계 삼아서 수신료 인상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적자편성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국민들에게 접근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실경영의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것이 방송철학이 없고 왜곡된 시각 때문에 그런 안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자세한 생각이거나…… 잘 모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번 개정안이 KBS에는 상당히 불리한 개정안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불리, 유리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의 생명과도 같은 독립성, 자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송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말은 맞다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 KBS 집행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저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방송위원회가 결국은 정부의 입김을 전달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을 이렇게 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런 의견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결국 언론통제 기도 때문에 이렇게 했더라는 시각도 잘못된 것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결과적으로 방송위원회가 제안한 개정법 중에 특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방송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여지는데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경인TV iFM 90.7MHz가 지금 방송만 내보내고 계속 공전되고 있는데 3라디오 '사랑의 소리'가 가청권이 좁으니깐 그것을 수중계 방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확대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확대에 관련해 가지고 자막방송, 해설방송, 부분적으로는 나가는 나가는데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미 방송된 것들,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CD라든지 유형물로서 만들 때 KBS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막방송이나 해설방송을 만들어서 소외계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전해 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세 위원** 지난해에 KBS가 실시했던 지역국 통합, 팀제 도입 잘되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잘되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새로 들어선 노동조합하고 갈등을 겪는 것 같은데 노사협의회가 결렬도 되고, 어떻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새 집행부가 들어서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도 있어서 지금 긴장관계입니다마는 서로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천영세 위원** 방송위원회에서 내놓고 있는 KBS와 관련된 방송법을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준조세에 해당되는 수신료로 예산이 짜여져 있고 운영이 되는 KBS가 예결산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투명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한쪽에서 나와서 정부투자 일반, 정부투자·출연기관처럼 기획예산처가 잡은 그런 기준을 공영방송사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KBS의 예산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 데는 공감이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사회가 실제로는 영국 BBC의 경영위원회와 거의 맞먹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천영세 위원**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지난 국감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일반 국민 설득이 조금 약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은 좀…… 저희들 민주노동당에서는 방송법 개정 또는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습니다마는, 물론 선결조건은 있습니다. 방송위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보다더 독립성을 갖고 위상과 자기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부분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MBC 신임사장 부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또 일성을 보면 연공서열 파괴, 대국소팀제 신설, 지방계열사 광역화 등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펼칠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쪽 얘기에 의하면 MBC의 신임사장 부임으로 9시뉴스를 비롯해서 오히려 KBS보다 시청률이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속에서 어느 때보다 KBS의 분발이 요

구되고 있는데 사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걸고 있는 KBS 개혁드라이브의 현재 상황이나 이후의 구체적인 방침, 업무현황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천영세 위원 강동순 감사 혹시 나오셨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나왔습니다.

○천영세 위원 최근에 예비사원 교육에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예.

○천영세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노조와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외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새 정부와 개혁코드가 맞는 새로운 경영진을 맞이하고” 이런 대목을 운운한 것이 사실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예, 사실입니다.

○천영세 위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믿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강 감사께서도 KBS의 경영진 아닙니까? 더군다나 외부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내부 출신이시면서요.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공공감사기준 8조에도 감사는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주머니에서 손 빼고……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죄송합니다.

경영진을 비판·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가치중립적인 것을 강 감사는 굉장히 중시하셨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갈대인데 도대체 세상에 가치중립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미경 강동순 감사, 증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세요. 주머니에 손 넣고 뒷짐 지고…… 자세가 틀렸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천영세 위원 KBS가 그동안 친일군사세력, 재벌들, 부패사학 이런 철저한 기득권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가 그나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서민대중들, 국민대중들 편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강 감사께서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세 위원 한 말씀만 해 보세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저는 73년부터 KBS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저는 노조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 합리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5공 정권하고 수구적인 데에 우리가 이용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진보로 가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후배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천영세 위원 됐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신입사원 교육장소에서 엘리트 계몽주의를 운운하면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엘리트적 계몽주의는 언론학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천영세 위원 강 감사님의 신입사원 교육장에서 교육 내용을 접하면서 아직 KBS의 개혁이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얼마나 험난한 길을 더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공정성, 가치중립성을 내세우며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내부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지금 2인자 아니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형식상, 법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사라게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천영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경영진에서는? 내부의 책임 있는 임원들이……

○위원장 이미경 천영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천영세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또 감사는 감사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내부의 다른 견해,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은 지적이 있을 경우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천영세 위원 이 자리에서 사장께서 그런 입장, 그런 견해를 피력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KBS가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환골탈태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 앞에 안팎의 도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배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감사합니다.

○**천영세 위원**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이계진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대신 봤습니다.

지금 막 끝난 얘기인데, 존경하는 천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역할 등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경영진과 밀월을 해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요.

사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도 구내식당에서 점심 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약속 없으면, 오늘도 구내식당에서 하고 왔습니다.

○**이계진 위원** 자주 가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이계진 위원** 지난번에 사고사한 직원의 빈소에 안 가서 질타를 받으신 것 같은데……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질타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이계진 위원** 초기에는 구내식당 이용하고 사원들의 장례식에도 열심히 찾아다녀서 아, 훌륭한 사장님 오셨다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뀌신 것 같아서…… 638억이 그와 관계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 그렇지 않을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마음을 조이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38억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줄로 믿고 또 지금도 들어서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사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동안 KBS가 한류열풍을 불러일으킨 진원지로서의 자긍심, 충분히 저는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연가’ 같은 것은 적은 제작비로 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이계진 위원** ‘불멸의 이순신’하고 ‘해신’은 시청률이 어떻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불멸의 이순신’은 어제의 경우에 전국권으로 24~25% 나왔고요, ‘해신’은 30%가 넘습니다.

○**이계진 위원** ‘해신’은 2TV인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2TV입니다.

○**이계진 위원** 광고 많이 안 들어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꼭 잡니다.

○**이계진 위원** 꼭 차지요. 좋은 드라마인데,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맞습니다.

○**이계진 위원** ‘겨울연가’처럼 적은 돈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은 엄청난 제작비인데…… ‘해신’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불멸의 이순신’은 대통령이 ‘칼의 노래’를 읽고 감탄했다고 해서 그 후속으로 만든 것 아닌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기획은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KBS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대하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전에 기획을 해도 늦습니다.

○**이계진 위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적자의 원인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계진 위원** 아까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뼈를 깎기 전이 아프지 뼈는 신경이 안 들어 있어서 깎아도 별로 아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38억이 사실 과거에 흑자 봤던 것에 비교한다면…… 합쳐서 적자 본 것이라고 계산해 주시고 올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역방송국 통합, 구조조정 등 힘든 일도 하셨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전체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요, 자잘한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국어기본법이 통과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어떻게 아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사실은 저희 아나운서 방에 한국어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한국어

팀하고……

○이계진 위원 그것은 저도 알지요. 거기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았고요, 저희들이 기대한 대로 한글날 통과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한글날 통과가 안 되고……

○이계진 위원 그게 상당히 뉴스거리가 안 됐나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되지요. 연말에 됐는데……

○이계진 위원 그런데 3사가 다 보도를 안 했어요. 한 줄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게 한글날 통과됐으면 매우 빛이 났을 텐데 연말에 많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묻혀 버렸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KBS 10대 기획 중에 아홉 번째에 이게 들어 있어요. 'KBS가 한국어를 지킵니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한국어인증시험인가요,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계시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그렇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국어기본법이라는 것이 통과된 사실을 보도도 안 해요? 진실성 없는 이런 기획에…… 믿음성이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은 그래도 KBS를 장악하고 계시니까 아나운서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야 보도를 안 하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 엄청난 법안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렇습니다.

○이계진 위원 국어기본법이 한글 창제 560년 만에 통과가 됐을 때는, 전 세계에서 창시자가 있는 글을 가진 민족인데 국어기본법이 이제 통과됐다면 9시뉴스 톱뉴스여야 되고 특집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한 줄도 안 나갔다는 것은 도대체 KBS가 정말 철학이 있는지…… 그러면서 감사의 쓴소리만…… 사장님은 받아들인다고 그랬습시다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연말에 통과된 것을 저희들이……

○이계진 위원 채널이 10개면 뭐합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지난해 10월에 저희들이 일요스페셜을 통해 가지고 60분 프로인 '위대한 여정 한국어' 3부작을 방영했어요.

○이계진 위원 글썄, 그런 노력은 좋습니다. 좋은데……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들 나름대로 한국어능력시험을 퍼지게 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연말에 한 것은 정말 저희들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이계진 위원 국어기본법 통과 소식을 안 전하는 것을 보고 신문이고 방송이고 대한민국 언론이 뭐하는지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후에라도 보도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뒤늦게 밝혀졌다 뭐 이런 제목을 달아서……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어능력시험……

○이계진 위원 이것은 외국에서 들으면 진짜 야만나라의 야만방송국이라는 소리밖에 안 들을 것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러면 작년 한글날에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연말에다 묻히게 하셨습니까?

○이계진 위원 그것은 여야가 있는 것이고, 원래 16대에서 통과 못 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통과된 다음에……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국어기본법이 갖는 의미를 새기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아까 강동순 감사님이 KBS 정연주 사장님의 개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간단하게 하셨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시다.

○안민석 위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너무 급진적인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물론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런데 KBS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2%가 변화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 신입 예비사원, 아직 정식사원도 안 된 예비사원

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의 특강인 것 같은데 그런 시간에 감사라는 분이 조직의 장을 정말 논리적이고 클리어하게 비판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그것은 조직의……

○**안민석 위원** 적절한 것입니까, 아십니까?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조직의 장을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일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게 그거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안민석 위원** 여러 가지 보도에도 감사님이 하신 말씀이 죽 나왔어요. 해명하지 마시고요. 아까는 존경하는 천영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사장님을, 상임위 자리에서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 정도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해명하지 마시고요.

저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울퉁은 소리를 잘해 가지고 피해도 자주 입고 그러지만, 신입 예비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특강에서 본인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에는 조직의 장이 실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엄청난 일을 자주 저질러 가지고 위원장님한테도 가끔 한소리 듣고 그러는데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상징적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 상임위장에서 사장님하고 감사님하고의 갈등을 저는 분명하게 봤고요, KBS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직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의 개혁 내용에 대해서 노조로 대표되는 내부 구성원들의 심각한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아까 인용하신 3700명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8%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38%의 비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다수가 동의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도 38%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는 그 지적한 내용 중에, 아까 박형준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박찬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마는 사내에 대화가 모자란다, 팀 간의 협력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번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서 팀제의 실시 이후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잘 처리하시기 바라구요, 어쨌거나 감사하고 사장이든, 부사장하고 사장이든 이런 상임위 자리에서 회사조직 내부의 중요한 임원 두 분이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 공개적인 특강자리에서 조직의 장을 비판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장님의 리더십 문제와도 직결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마이너한 문제 한 가지, 업무현황보고 과제4 중에서 KBS 스포츠 프로그램 공익성 강화라는 계획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KBS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도 내용이 MBC와 SBS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차별화를 시킬 것인지 보니까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풀뿌리 체육에 관련된 보도 내용을 강화시켜서 기존의 MBC와 SBS 스포츠 보도와 내용을 차별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십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가을에 국감 할 때, 앞으로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실천이 됐는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가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지 않겠습니까? 가을 정도에 국감 할 때 SBS하고 MBC의 스포츠 프로그램 보도내용하고 KBS가 어떻게 차별화됐는지 그것을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올해 어떻게 차별화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저는 오늘 KBS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느끼는 감정이, KBS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됴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

회 자체에서 KBS 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가치중립적이라고 하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야 구분 없이 똑같은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가 돼야 되는데 같은 문제를 갖고도 영 판판으로, 정반대로 입장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서 KBS의 감사하고 사장의 입장이 상반이 되고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님, 감사께서는 신입사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강의를 했을 때 일부 KBS 보도라든가 KBS 편성 방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좌편향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듣고 하신 것이지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저는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마는……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표현은 안 썼지만……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중립적이어야 된다……

○정병국 위원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하신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감사 강동순 예.

○정병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께서 KBS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치중립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된 조직이 아니라 경영자하고 감시를 해야 될 감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KBS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께서 인사말을 통해서 “과거 회귀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킨 일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KBS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어렵사리 마련한 공영방송 독립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바꾸셨는데 원문은 “일각의 불순한 기도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행히 방송위원회와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고 원만하게 문제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어렵사리 만들어낸 이 토대를 누가 불순한 기도를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제가 “불순한 기도”라는 표현을 지우고……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인데 그 대상을 지적할 수 있어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는 없고요.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KBS 노조에서 이러한 성명을 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다시 국영방송으로 만들려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하고 있고 방송위원회가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장께서 말씀하신 인사말이나 이것과 비교를 해 보면 여기에서 불순한 기도를 한 세력이 누구인지 잘 드러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문화관광위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위원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셨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장께서는 한쪽만 보고 상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이사회가 상위에 있습니까, 사장님이 상위에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병국 위원 최고 의결기관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정병국 위원 최고 의결기관이 권고를 통해 가지고 수입 결함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재무사항은 그 결과 너무 어렵게 됐고 그래서 경영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하면 이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병국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저는 방송위원회에서

내용은 안이 미봉책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KBS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독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내용은 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방송정책을 감독하고 정책을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봉책을 내놓았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KBS가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저희 한나라당에서 내용은 국가기간방송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자구를 대면서 반박을 못하는데요. KBS 측에서 저희 당이 내용은 국가기간방송법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 있고 방송위원회에서 내용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박하는 안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서로 상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KBS는 KBS한테 유리했을 경우에는 삼키고 쓸 때는 내뱉는 이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래서는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제대로 제 위치를,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사장님께 아주 많이 실망을 하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적자 부분에—적자 낼 수 있습니다—문제제기를 하는데 초지일관 책임회피를 합니다. 근본적인 구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근본적인 구조를 어떻게 개혁해야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셔야지요. 그것 때문에 안 됐다 그러고는 그것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책임추궁을 받는 경영자로서 할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 분명히 하십시오.

근본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다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어떻게 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적자 행태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KBS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을 내셔야지요. 그것을 내시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한 1분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미경 말씀하십시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정병국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국책사업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또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위원님! 지난해 저희들 팀제, 지역국 기능조정 그것 참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토털 리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털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계속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내부의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런 것 하나하나 추구하겠는데 위원님께서……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팀제 개혁하고 다 인정을 하는데요. 팀제 개혁을 하고 나서 그것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팀제로 났으면 구조조정을 한 것인데 적자폭이 줄어들어야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나중에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작년 KBS 적자가 630억 원이 넘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노웅래 위원 올해도 광고판매율을 보면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올 1월 방송 광고 판매액을 보면 작년 1월 동기 대비하면 한 15% 감소했고 재작년하고도 비교하면 한 27% 감소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노웅래 위원 국가기간방송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광고수입에 의존해서 광고를 운영해 가지고는 제대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노웅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들께서 재정

구조를 공영화시켜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그냥 수신료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수신료 공영화해 주시고 저희들은 공적서비스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 일부에 KBS의 편파 시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다 녹여서 방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현재 가장 신뢰받는 언론매체는 KBS입니다.

○**노웅래 위원** 하여튼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노웅래 위원** 하여튼 수신료 인상하려면 자구 노력이나 뭔가 모습을 보여 주셔야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다한 오락 편성 관련해서 하나 여쭙게요.

작년 가을 개편 이후에 방송 3사 프로그램 분석한 것을 보면 KBS 2TV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50%로 4개 채널 중에 가장 높습니다. 주말 저녁시간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보면 KBS2 같은 경우에 89.1%로 되어 있는데요. 공영방송으로서 오락 비율이 높아도 너무 과도하게 높은 것이라고 보는데 KBS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2TV 오락 편성 비율은 한 38% 되고요. 주 시청대에는 50%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KBS2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노웅래 위원** 그것은 어디서 조사한 것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작년 가을 편성 기준입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방송위원회가 조사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설명드릴 것은 지금 방송위원회에서 적용하는 오락과 교양의 기준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매우 모호합니다. 예컨대 ‘비타민’ 같은 프로, 그다음에 청소년 성장드라마인 ‘반올림’을 저희들은 교양으로 보는데 방송위원회에서는 오락으로 봅니다. 그런 개념상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똑같이 교양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좀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쓰면 이게 오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앞으로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KBS 사장께서 개념을 왜 혼란스럽게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동의하세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방송사와 저희 위원회 간에 오락·교양·보도프로그램에 관한 분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 기준을 좀더 엄격히 해서 방송사와 분류기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분류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KBS 사장께서는 방송위원회가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저희 입장에서 보면 방송사들이 가급적이면 교양 쪽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저희들은 오락 쪽으로 많이 분류를 하고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관점의 차이이고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사와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웅래 위원** 감독기능 할 수 있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예, 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방송위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되지만 방송위가 맞는데 KBS가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촉구해야지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미묘한 차이이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미묘한 차이가 아니고 큰 차이인 것 같은데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래서 저희가 설득하고 있고요. 기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웅래 위원** 사정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감독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하여튼 저희가 방송사와 많이 대화를 하고……

○**노웅래 위원** 교통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같이 앉으셔서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방송위원회 위에 KBS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송위원회부위원장 이효성** 그렇습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드라마, 애니메이션까지 오락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를 위한 만화영화 같은 것은 교양이 아닌가…… 아까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방송위원회하고 방송사 사이에 개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좁혀지도록—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말씀은 조금이라고 하는데 조금 차이가 아닌데요. 자꾸 조금이라고 그러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웅 위원** 정태진 경영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결산서 나와 있지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태진** 결산서는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어디예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태진** 방송위원회하고 국회에……

○**이재웅 위원** 국회에도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태진** 예.

○**이재웅 위원** 오늘 다 나와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태진** 결산안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쇄 중입니다. 이사회 의결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사회 의결이 언제였지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태진** 2월 25일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25일이면 오늘이 28일이지 않습니까?

인쇄가 그렇게 오래 걸리도록 양이 방대합니까? 무슨 인쇄를 합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태진** 삼일회계법인, 외국회계법인에서 한 감사보고서가 있고요. 책으로 나온 결산서가 있고요.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이재웅 위원** 종류가 몇 가지 있어서 인쇄가

많이 늦네요.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태진** 오늘 중으로 는 제출할 것입니다.

○**이재웅 위원** 결산요약보고서라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데 책임을 넘겨보려고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그것 참 민망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출한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팀제는 누가 운영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태진** 제가 답변……

○**이재웅 위원** 팀제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경영본부장 정태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팀제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이재웅 위원** 누구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직접 담당자가 좀…… 사장은 전체를 통괄하는 분이시 사장이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정책기획센터장입니다.

○**이재웅 위원** 팀제 컨설팅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예, 팀제 시행하기 전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어디서 컨설팅을 받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컨설팅사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재웅 위원** 전문가로부터 받았습니까?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논의만 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용역을 주고받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논의하면서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냥 차 한 잔 하면서 밥 먹으면서요?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여러 차례 미팅을 공식적으로 하면서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대KBS가 이런 중요한 팀제, 운영인력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일을 그냥 앉아서 몇 차례—수십 차례든 백 차례든—

얘기하고 만다는 말입니까?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이 내용은 외부전문가도 물론 중요하고 많은 자문을 받기는 하지만 내부에 오래 축적된 저희들……

○**이재웅 위원** 팀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정책기획센터장입니다.

○**이재웅 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이규환입니다.

○**이재웅 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되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팀제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제가 스스로 연구한 결과는 아주 미흡하고요. 저희들이 오랫동안, 한 10년 20년 전부터 우리 조직에 대한 연구를 해 온 파일이 캐비닛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가장 잘 활용한 연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팀제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 파일을 빨리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웅 위원** 있으니까 정리가 되는대로 바로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워낙 여러 가지라서 오늘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웅 위원** 오늘 제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정리할 것은 정리할 것이니까요.

○**한국방송공사정책기획센터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다음에 노조가 KBS 경영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노조가 KBS 경영

의 발목을 잡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재웅 위원** KBS 사 측에서 그랬다고 보도에 나와 있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와 저희 사이에 사안에 대해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재웅 위원** 지금 팀제와 지역국 통합 잘돼가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61%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경영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없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지난해까지의 노조가 9대 집행부이고 올해가 10대 집행부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라고 이렇게 일반명사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느 집행부였나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재웅 위원**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히 물으면 그 물음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 주시고 이래야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이재웅 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노조가 경영에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이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이재웅 위원** 그러면 현재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은 전부 경영진에 있네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적어도 60% 이상은?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이재웅 위원** 인정하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인정합니다.

○**이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상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국정감사하면서도 KBS가 적자를 낼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적자 본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적자폭이 저도 사실 액수를 보고서는 좀 놀랐습니다. ‘아, 이 정도였나?’ 했는데 광고 감소액이 1000억이 넘었다고 하니 상당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적자폭이 큰 문제는 사실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작년 같은 이런 폭의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올해도 KBS가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것은 전적으로 광고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1월, 2월의 경우 지난해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 광고시장이 위축되면 왜 KBS2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고료 배분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광고주들하고 광고대행사들의 광고비 집행 패턴이 상당히 오랫동안 틀어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BC 중심으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광고시장이 위축되면 제일 먼저 KBS부터……

○우상호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 또 지금 드라마는 MBC보다 훨씬 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래서 최근에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근 1월, 2월의 경우 KBS 1TV의 낙폭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셨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가 광고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재원이 요동치는 시스템은 굉장히 옳지 않은 시스템이다 그렇다고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KBS가 다시 선정적인 시청률 지상주의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적자폭이 많으니까 경영상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영상태를 좁히기 위해서 다시 또 시청률 지상주의로 가면 공영방송의 공영성은 또 다시 훼손된다, 따라서 KBS 같은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는 예를 들면 수신료와 광고료의 비율이 역전되어야 한다는 이 주장을 작년부터 계속 해 왔거든요.

올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수신료 문제는 정말 상당할 정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는 수신료를 인상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최문순 MBC 사장이 취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KBS처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연주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추진했던 개혁 자체가 KBS 내에서는 일정하게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방송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과급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KBS가 이런 자체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MBC가 과연 40대의 개혁적인 사장을 임명했겠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62%가 긍정적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부정적인 것은 뭐였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가장 부정적인 것은 팀원과 팀장 그리고 팀원 사이에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부정적인……

○우상호 위원 그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저는 아직도 KBS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팀원 사이 그리고 팀장과 팀원 사이에서 팀제가 추구하는 민주적인 의견교환, 대화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끊임없이 워크숍과 이런 저런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꾸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상호 위원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재원 자체를 공영화하고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니까마는 그러기 위해서 자체 개혁이 매우 중요한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경영이 악화되니까 제작비를 많이 절약했다고 하신 말씀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상호 위원 인건비를 절약해야지 제작비를 절약하면 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그대로 놔두고 제작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고통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

다고 봅니다. MBC도 10% 깎겠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가 동결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수신료 올려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를 깎는 이런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시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셔서 내부를 설득하셔야지,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제작비를 깎으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KBS 직원들의 인건비를 절약하지 않기 위해서 제작비를 깎음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인 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강도 높게 지금까지 추진하셨던 그 원칙을 지키시면서 올해를 풀어가지기 바라고,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나 말에 결산할 때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DMB 관련해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서면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지금 수입지출 관계, 적자예산 편성되지 않고 균형으로 맞추겠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한 본인의 강력한 의지까지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찬숙 위원님.

○**박찬숙 위원** 10대 노조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 열린 노사협의회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결렬됐습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지역국 일곱 군데 기능조정 결과로 순천하고 여수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1라디오와 1TV가 순천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순천은 현재 2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2라디오 로컬프로그램 제작프로그램이 세 편이고 뉴스가 다섯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라디오가 여수에서 올 경우에는 1라디오는 뉴스 전문 채널이니까 그것으로 뉴스 다섯 개 프로그램은

흡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라디오 기본채널 정책이 총국에는 1라디오, 2라디오, FM을 다 하지만 을지국 경우에는 1라디오 중심으로 가겠다, 2라디오는 아무래도 오락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박찬숙 위원** 사장님, 그 점에 있어서 노조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렇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말고 그전 다른 공약이라고 그럴까 약속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다른 약속은……

○**박찬숙 위원** 상반되는, 상치되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아닙니다. 지역국 활성화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순천하고 강릉에 2라디오 로컬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을 지역국 활성화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희들은 라디오 채널정책이라고 보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로 하겠고요, 한겨레신문에 삼진아웃, 희망퇴직제, 임금피크제가 보도돼서 노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요?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노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위원회 개정법을 둘러싸고 KBS가 방송위원회와 이렇게 전면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가서 고생하고 전면으로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원들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위원장 이미경** 박찬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박찬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임금피크제, 삼진아웃제, 희망퇴직제를 강행하실 것입니까?

○**한국방송공사사장 정연주** 그것은 사규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것입니다.

○**박찬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재홍 위원, 정청래 위원, 김재윤 위원, 최구식 위원, 손봉숙 위원, 박형준 위원, 심재철 위원, 천영세 위원, 정병국 위원, 우상호 위원, 윤원호 위원, 안민석 위원, 박찬숙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이어서 아침에 논의한 결의문 채택과 국정홍보처 등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경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따른 「한·일 우정의 해」 문화교류행사의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결의문

○위원장 이미경 의사일정 제2항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따른 「한·일 우정의 해」 문화교류행사의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논의된 결의안 채택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문화관광부장관님께서 출석하여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 급히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일 우정의 해’ 행사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현황을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일 우정의 해’는 2003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및 ‘한일 국민 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 간 상호 신뢰와 우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다음 페이지에 세부문화행사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3년 6월 한일정상회담에서 기념행사 추진에 합의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총예산은 20억 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18억이고, 또 우리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기로 되어 있습

니다.

개막식은 지난 1월 25일 동경 요요기 체육관에서 있었고 우리 한국에서는 1월 27일 일본 측의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주요문화행사는 문화예술, 산업, 관광,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선정해서 문화콘텐츠·게임 전시, 판소리·분라쿠의 교환공연, 그리고 한일 문화교류 세미나 등 20여 개의 행사가 금년 내내 열릴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양국 간의 문화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해 및 우호친선 분위기를 높이는 것이었고 또 최근 일본 내 한류 분위기를 문화교류 전반으로 지속·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독도문제로 한일 문화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여러 발언들이 속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첨부된 ‘한일 우정의 해 2005’ 문화행사 개요는 위원님들께 지금 유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죽 되풀이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 대사의 망언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위원장과 정병국 위원 등의 제안이 있었고 또 정병국 위원, 김재윤 위원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영유권 주장 발언에 따른 「한·일 우정의 해」 문화교류행사의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간사위원들과 함께 협의한 결과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의문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의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청래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정청래 위원님.

○정청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형식으로 위원장님께 좀 여쭙 보겠습니다.

제목이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영유권 주장 발언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내용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본문에는 “망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망언’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규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목에 ‘망언’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과, 지금 그것을 규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규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결의문을 채택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미경 우선 위원님들 주장을 죽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정병국 위원 저는 일단 초안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중요한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바쁘신 중에 장관 출석을 요구했던 이유는 정부의 입장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일 우정의 해로 2005년도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우정의 해로 2005년도를 지정하고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족쇄에 얽매어서 역사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과거는 과거대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도 “나가자 미래로, 다같이 세계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한일 우정의 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지금 한류의 분위기를 보다 더 고양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애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주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국대사의 망언 이후 주로 외무부 중심으로 이것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현재 한일 우정의 해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는 어떤 의견교환을 했는지,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상황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뒤에 논의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우선 간략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위원님들의 인식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먼저 정부의 공식입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분명한 영토이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상임위에 나오기 전에 외교부장관님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입장임을 밝히면서, 다만 실효적 지배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이 외교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외교부장관의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여기에 교류 행사의 전면 재검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전부터 저희 부 내에서는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숙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제가 저희 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계진 위원님.

○이계진 위원 저는 4항의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4항 맨 마지막에 “「한·일 우정의 해」 행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이라고 했는데 이미 시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일 우정의 해」 잔여행사를 무기 연기할 것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개막식도 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는 행사내용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박찬숙 위원님.

○박찬숙 위원 정청래 위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쪽의 주장이 있고 우리 쪽의 주장이 있는 듯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따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잔여 행사, 정확히 말하면 맞습니다. 마는 그냥 “「한·일 우정의 해」 행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웅 위원 국어시간은 아님니다마는 결의문 두 번째 단락의 문장이 아주 어색합니다. “시점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의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주어도 없고 동사가 무엇인지, 누가 의심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 문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수정을 꼭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행정부서, 관청의 문서는 ‘밋’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밋’은 사실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급(及)자라는 한자의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밋’ 이렇게 하는데 ‘밋’은 ‘과’나 ‘와’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국어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청의 문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회에서, 국어기본법도 제정한 마당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두 번째 단락은 꼭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4항을 차라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여”라는 것을 대신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진행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형준 위원 뜻이야 그런 뜻인데 과연 망언, 특히 저쪽에 있는 관료가 아니라 우리 국의 야그레망을 받고 나와 있는 외교대사를 향해서 망언이라고 국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은 외교적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칫 저희가 다른 빌미를 줘서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외교부하고 해 보시는 것이……

○위원장 이미경 위원님들 의견은 거의 개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사 위원들하고 같이 검토해서 적절하게, 자구 검토를 위원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이러한 결의문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단단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구는 위원회에서 다듬어 주시겠지만, 다만 행사는 양국 간에 이미 합의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

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외교적 분쟁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행사를 전면 재검토”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본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전달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한일 우정의 해를 통해서 최근에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살려져서 진정으로 새롭게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일본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속에서 한일 우정을 다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뜻을 강력하게 정부 차원에서도 전달하셔서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우정의 해 행사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문화행사 개요에 보면 ‘중앙박물관 일본실 설치’가 있는데 일본에 있는 박물관에도 한국실이 설치되는지 하고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하는 것인지, 상설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본에서 하는 행사도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국립중앙박물관은 금년 10월 28일에 용산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전시장 구성계획을 짤 때부터 동양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일본실은 당초부터 가져가는 것으로 있었던 것이고 우에노 공원 안에 있는 동경국립박물관에 한국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은 제대로 된 한국실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도 해 보면서 내용도 검토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외국에 있는 박물관의 한국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국립박물관장과 함께 보강해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제목은, 이것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가부간 결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하고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다가 우리가 촉구하는 결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염두에 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망언”으로 가시지요.

○**위원장 이미경**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망언”으로 제목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따른 「한·일 우정의 해」 문화교류행사의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의문은 끝에 실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문의 체계와 자구의 수정 문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장관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위 차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미 2월 24일부터는 한국문화콘텐츠전시회가 진행되고 있고 바로 3월 3일부터는 판소리·분라쿠 교환공연이 있습니다. 이 결의문이 채택된 바로 직후에 이루어질 행사 이전에 국회에서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 하는 입장을 장관 차원에서 분명히 일본 측에다 전달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쪽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장내가 정리되면 이어서 국정홍보처 등 3개 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정홍보처 등 3개 기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정홍보처 정순균 처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국정홍보처장 정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처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처에 보내 주신 많은 성원과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참여정부 출범 3년째가 되는 해로서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과 계획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처는 금년도 홍보목표를 정책홍보의 품질혁신을 통한 국민공감 정책홍보와 역동한국 이미지의 전 세계 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두고 국내외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주요 국정과제를 집중 관리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자신감 회복, APEC 정상회의, 광복 60주년, 반부패 등 7대 핵심 홍보과제를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홍보하고 민간전문가의 활용 등을 통해 지원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홍보시기와 절차, 방향 등을 협의하는 등 홍보 의제의 정밀한 기획·조율 시스템도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둘째, 정책홍보의 품질을 높여서 정부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안전 및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책홍보 품질을 제고하고 홍보전문성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통해서 정책홍보의 혁신역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고객 우선의 맞춤형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장·차관 생중계브리핑 정례화 등 KTV의 정책정보 전문채널 특화, 인터넷 국정브리핑, 정책고객서비스 등 온라인 홍보공간의 확충 및 오프라인 매체 코리아플러스의 품질제고를 통해서 정부매체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의 발간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KTV 자막방송의 확대 등을 통해서 정책정보소외계층 대상에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선진한국 이미지의 대외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이미지 추진체계 재정비, 국가브랜드인 다이내믹코리아의 보급 확산을 통해서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여론 주도층 대상 홍보강화와 한류의 지속 확산 홍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보를 전개하는 한편 대학과 네티즌, 민간단체와의 공동프로젝트

추진, 한국 관련 오보 및 왜곡보도의 신속 발굴 대응 등을 통해서 부정적인 국가이미지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처가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업무 현황은 홍보기획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백만 차장입니다.

다음 권영후 홍보기획국장입니다.

인병택 홍보협력국장입니다.

이엽 전자홍보분석국장입니다.

유재웅 해외홍보원장입니다.

장동훈 영상홍보원장입니다.

정인준 해외홍보원 외신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홍보처홍보기획국장 권영후 국정홍보국장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홍보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도 저희 처 예산은 564억입니다. 전년도보다 5.8%가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목표 및 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저희들 중점추진과제로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의제에 대한 전략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자신감 회복, 광복 60주년, 빈부격차 등 7대 핵심 홍보과제를 대상으로 해서 과제별 TF 구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의제관리, 영상보도자료 제작, 정책보고자료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대고객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TV·전광판,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미디어 믹스(Media Mix) 홍보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민간의 홍보전문가 중심으로 홍보실무자문팀

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의제의 기획·조율 시스템을 공고화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략, 방향 협의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정홍보처장 주재의 홍보대책회의를 운영하든가 주요 의제별 홍보시기, 절차,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공보관회의나 홍보실무협의회를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역점 홍보과제인 정책홍보의 품질제고를 위해서 먼저 주요정책 발표에 대한 사전협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 및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메시지나 예상쟁점 등을 해당 부처와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으로 미디어 여론분석 등을 강화해서 정책홍보 아젠다를 조기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전문성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관·학 협동의 홍보아카데미를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연 2회에서 연 5회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역점과제인 고객 중심의 맞춤형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KTV, 국정브리핑, PCRM, 코리아플러스 등 정부매체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KTV를 정책정보 전문채널로 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정책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포털사이트인 인터넷 국정브리핑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포털과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확장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핸드폰 전용 무선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CRM, 정책고객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전문지 코리아플러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지면을 대폭 쇄신, 저희들의 간판 정기간행물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보도자료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사업입니다. KTV로 하여금 영상프로덕션팀을 구성해서 종합제작 대행체제를 구축토록 하는데 여기에는 EBS나 민간제작사 등 공동 참여를 유도하고, 세 가지 모형의 VNR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VNR은 공중파나 지역민방 등 언론기관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 소외계층 대상 홍보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를 금년 3월부터 계

간으로 연 4회씩 1000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테이프도 동시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대상 KTV 자막방송을 현재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주 5일에서 7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를 전국 416개 점자도서관에 배포한다고 하는데 점자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국정홍보처홍보기획국장 권영후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416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점자도서관이 35개예요. 전국에 있는 민영, 공영 다 합쳐 가지고 35개입니다.

○국정홍보처홍보기획국장 권영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이 받은 통계자료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정책고객서비스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계시냐고요.

○국정홍보처홍보기획국장 권영후 예, 그렇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국정홍보처홍보기획국장 권영후 총체적으로 한 1200만 고객입니다.

○박형준 위원 1200만이요? 국정홍보처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가요?

○국정홍보처홍보기획국장 권영후 전 부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아, 정부 전체 차원에서 1200만 이요?

○국정홍보처홍보기획국장 권영후 예.

○박형준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주실 수 없겠지만 1200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축된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살아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려면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홍보기획국장 권영후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홍보대책회의가 홍보처 내의 회의입니까, 아니면 각 부처 간 회의입니까?

○국정홍보처홍보기획국장 권영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의제와 관련해서 관련 부처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네 번째 역점사업인 선진한국 이미지의 대외확산을 위해서 먼저 국가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대통령훈령의 국가이미지위원회를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이미지 추진체계를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국가브랜드 다이내믹 코리아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주요행사나 각종 홍보물 등을 활용해서 범정부 차원의 홍보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민·관 홍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CNN, Euro News 등 해외방송이나 인터넷 등 대내외 파급력이 큰 홍보매체를 중점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여론주도층 대상 홍보를 위해서 월간 영문 홍보지를 창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책전문지로 특화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문가가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이나 학술행사를 수시로 개최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주한외국인 대상 한국역사문화강좌 개최, 국내 외국인과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KOIS 포럼 운영,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한국 알리기 홍보 추진사업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한류붐 지속을 위해서 문화, 예술, 언론 등 각 분야의 주요인사 초청교류사업을 전개하고 베트남, 중국 등에 한국어강좌를 확대하고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중동 및 중남미 등 새로운 지역에 한류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드라마의 방영을 확대 추진하고 아리랑TV를 활용해서 국가이미지 광고를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국가이미지의 시정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네티즌·민간단체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학 등과는 오류시정 캠페인을 3, 4월 중에 전개하고 네이버닷컴 등과 오류시정사업을 공동 전개하겠습니다. 해외의 한국학연구소, 교포, 유학생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국의 브리검영대학 한국학연구소와 미국 백과사전 오류시정 연구 프로젝트

를 실시하고 교민단체나 유학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현지 오류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외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외신의 왜곡 보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홍보원 유재웅 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해외홍보원장 유재웅입니다.

앞서 기획국장께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요점만 압축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해외홍보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예산과 정부 대표 영문홈페이지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외홍보원 역점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역동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정부의 국가이미지 추진체계가 재정비되고 해외홍보원이 명실상부하게 국가이미지 업무를 주관하는 실무 책임기관이 됐습니다. 정부 내의 해외홍보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홍보협력을 강화해서 국가이미지가 한 차원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아직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만큼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한국 알리기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특성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구력 있는 홍보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외홍보의 효율을 높이고 긍정적 국가이미지를 세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홍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거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들이 중요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전개해 한국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관련 해외 오류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유관부서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계, 민간단체, 네티즌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오류시정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학연구소, 해외교포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내외적으로 시스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우상호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소구력 있는 홍보콘텐츠 제작 활용’ 그러는데 제가 국문과인데도 소구력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이해를 높이는’이라는 말로 광고홍보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앞으로 좀더 쉬운 말로 바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상호 위원** 해외홍보를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하시면 안 되는데요.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쉬운 말로 바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원 장동훈 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영상홍보원장 장동훈** 안녕하십니까? 영상홍보원장 장동훈입니다.

저희 원의 구체적인 업무현황보고는 앞서 기획국장께서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인사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평소 저희 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관광위원회의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홍보원 전 직원은 정부정책 홍보매체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주어진 인력과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TV는 특히 정책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난달 공모를 통해서 채널명칭을 ‘한국정책방송 KTV’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론과 다큐멘터리 위주의 방송에서 정책뉴스와 정책대담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처의 장·차관과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위원장 등이 직접 출연해서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정책브리핑과 국정포커스 등 정책생방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영상홍보원은 앞으로 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과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KTV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세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시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정청래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삼일절 관련 행사를 했습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2005 SOC 찾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했는데, SOC라는 것이 Sea of Corea입니다. 지금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표현이 되고 있고 해외사이트에도 보면 실제로 동해라고 표현되는 것보다는 일본해로 표현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제가 봤는데, 10분짜리 동영상물이었는데 실제로 17세기, 18세기부터 한국, 그러니까 Sea of Corea라고 표현된 지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해라는 것을 역사적인 자료들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물을 국정홍보처에서 만들었더군요, 그렇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저는 10분 동안 동영상물을 보면서 몰랐던 사실과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동해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훌륭하고 잘 짜여진 그런 동영상물이 왜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해외에 홍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제작된 동영상물이 너무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작을 잘하셨는데, 우리 국민들과 외국에 그 동영상물이 많이 틀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다이내믹 코리아 광고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외홍보원에도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을—저도 깜짝 놀랐는데—2003년도에 1900만 명이 이용을 했더군요. 하루 평균 5300명인데,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홍보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좀 안 보이는 데로 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지금 공항 주변은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하고 제주공항 앞에 대형 입간판으로 돼 있고, 실내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저쪽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 중이라서……

○**정청래 위원** 기왕에 하시는 것 좀 잘 보이는 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서 한 인터뷰에서 “올해 언론과 긴장관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서 비난하는 일은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정정보도 요청 이런 부분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청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국감 때 캐나다 홍보원을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오타와에 있는데, 토론토나 밴쿠버, 몬트리올 등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여쭙 봤습니다.

해외홍보원장님, 계획이 없습니까?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외교부가 해외주재관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이것은 국정홍보처의 업무이기도 할 것이고 해외홍보원의 업무이기도 할 텐데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까 일본해로 표현돼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8만 5400군데이고 동해로 표현되어 있는 데가 2만 7300곳이라고 그러합니다. 지금 비율로 봐도 일본해가 많습니다. 1929년 이후, 실제로 우리 국가주권 상실 이후에 이렇게 일본해로 일본에서 작업을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과거사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든 아니면 우리

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력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시지요.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위원님, 저희들이 그 부분은 특히 유념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국정홍보처장님,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티포터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없애기로 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아니요, 없애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업무보고에 없어서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기존의 것은 오늘 보고에서 생략했습니다.

○정청래 위원 네티포터제도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홍보아카데미 개설 운영하겠다고 그러네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하고 있는 내용의 계획하고 조직이나 자금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다음에 국정홍보처 업무현황보고하고 해외홍보원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국가이미지 체계적 관리, 국가브랜드 다이내믹 코리아 보급 확산 이런 내용들이, 해외홍보원이 국정홍보처의 큰 틀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까?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예, 그렇습니다. 해외홍보원이 국정홍보처의 소속기관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이 큰 틀을 가지고 해외홍보원에다 지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슷하게 다시 업무현황보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것은 저희 본부하고 따로따로 직속기관보고를 하다 보니 이중으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이재웅 위원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현재의 판결이 난 이후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게 10월 21일인데 다시 그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게 11월 18일이네요. 11월에 후속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또 광고를 시작했네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것은 여야 특위가 구성이 되고……

○이재웅 위원 하셨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캠페인성광고를 안 하셨네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이번에도 캠페인성광고를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캠페인성광고도 하셨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이재웅 위원 그것은 저는 몰랐네요. 그것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KBS 1·2TV에 계약금액 4억 260만원으로 광고를 했는데 이것은 TV 스포츠광고이네요. 스포츠광고를 하셨네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캠페인성광고도 하셨다는 말이지요? 확실히 대답을 좀 하세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이번에는 스포츠광고 식으로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캠페인성광고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이번에 한 광고는 스포츠광고 식으로 해서……

○이재웅 위원 이번에 한 것 말고요. 이 계약건 말고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안 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 뒤로는, 후속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캠페인성광고도 안 하셨다는 말이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번에는 왜 캠페인성광고를 안 하셨어요? 이게 더 썩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이번에 말씀이시지요?
 ○**이재웅 위원** 예, 후속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국정홍보처가 예비비 등을 사용해 가면서 광고를 하셨잖아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이재웅 위원** 이번에는 왜 캠페인성광고를 안하고 스팟광고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지난번에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캠페인성광고보다는 스팟광고 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재웅 위원** 어떤 지적을 했는데 캠페인성광고에서 스팟광고로 바꾸셨어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때 위원님께서 사진심의대상이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실무적, 행정적인 대답을 자세히 드리는……
 ○**이재웅 위원** 아마 제가 고함을 크게 질러서 제 뭘 지적했는지 제대로 다 못 알아들으셨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확인들을 하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리고 스팟광고도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물론 여야가 합의를 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TV 스팟광고는 지금 광고심의를 받으셨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광고심의는 안 받았습시다.
 ○**이재웅 위원**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이재웅 위원** 확실합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개인적인 얘기 같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정순균 홍보처장께서 경질되었다는 결정이 났었고 또 본인도 스스로 이제 훌가분하다라는 발언을 하셨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유임이

되셨지요? 그것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인사권자의 내용이 있겠지만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찾아본 후임자가 정 처장님보다 시원찮다 그런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것은 제가 답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에서는 건강한 협력관계, 따뜻한 인간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언론정책, 대언론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건강한 협력관계, 따뜻한 인간관계까지를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언론관계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건강한 긴장관계를 표방하고 지금까지 실천해 오면서 새로운 언론과의 관계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상 건강한 긴장관계를 표방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언론하고 정부가 싸우는 모습으로 비치는 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나타나서 앞으로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협력관계라는 것은 정부에서 언론을 배척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홍보창구로서 충분히 활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접촉을 꺼려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언론인들을 만나서 우리 정부 정책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제공하고 이런 창구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필요 없는 갈등관계로 비치는 측면을 배제하자 이런 관계이지 기본적인 대언론관계에 있어서 변함은 없습니다.

○**노웅래 위원** 언론과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려고 개방형브리핑제 시행하고 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노웅래 위원** 그런데 이게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개방형브리핑제를 시행한 이후에 장·차관 주 1회 이상, 그리고 실·국장은 수시 브리핑을 약속했는데 지난 한 해를 보니까 부처별 장·차관 브리핑은 1주에 평균 0.5회에 그쳤고 주 1회 이상 브리핑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당초 약속도 지키고 않았고 본래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개방형브리핑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지금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보니까 공직자들이 아무래도 언론을 기피하고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처에서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고 언론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좀더 브리핑 횟수라든지 내용을 늘려 나가도록 지금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점차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행 첫 회에는 월 1.6회였던 것이 작년에는 한 1.8회로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횟수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더욱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하여튼 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우상호 간사, 정병국 간사와 사회교대)

○노웅래 위원 이미지제고사업의 추진 강화를 위해서 지금 국가이미지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격상시켰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이번에 홍보처장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됐습니다.

○노웅래 위원 자문기구도 돕고 홍보대사도 돕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활동을 펴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조직은 굉장히 확대되었는데 예산과 인력 확충은 다 된 것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산하고 인력은 아직 뒷받침이 안 되었고요.

○노웅래 위원 그러면 어떤 복안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예산과 조직이 확충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처 차원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홍보예산을 증액하는 것에는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었었는데 지난해에도 보면 야당 위원님

들께서도 국가이미지 홍보 예산을 좀 올려 달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웅래 위원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철저한 계획을 제시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라구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해외홍보기구 일원화 이것 올해 교통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홍보기구 일원화는 3월 10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철저히 교통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 위원 해외홍보기구 일원화는 3월 10일까지 마무리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정부혁신위원회에서 3월 10일까지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업무현황보고 9페이지를 보니까요. 국내외국인 대상 찾아가서 홍보하는 것하고 한류를 지속해서 확산시키는 홍보 및 여러 가지 대상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한국어강좌를 확대하고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조국을 빼앗기고 중국 러시아 몽골에 흩어져 있던 우리 민족은 스탈린 시대—1930년대쯤으로 기억하는데—에 몇십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그 후손들이 면면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중심이 되고 있는 게 그쪽에 있는 한국어방송 또는 조선어방송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연길이라든가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데 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4개 나라에 한 90여 개의 한국어방송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KBS에서 일할 때 개인적으로 한국어 교본 보내 달라, 노래를 하게 테이프를 보내 달라, 여러 가지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쪽의 홍보 예산을 더 하시면 새롭게 한국어강좌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으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이번에 국가이미지위원회가 개편되면서 산하에 해외홍보원장이 의장이 되어 가지고 해외방송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외방송을 활용한, 여러 한국어방송을 활용한 홍보대책도 거기에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해외방송을 활용한 속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우리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정홍보처에서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없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상으로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야당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야당 위원들도 찬성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미 오랫동안 짝이 터서 나무로 자라고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우리 민족의 얼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쪽에 집중을 하시면 새롭게 강좌를 개설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찬숙 위원** 또 하나 내국인 대상으로 국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게 KTV인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정책……

○**박찬숙 위원** 시청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숙 위원** 얼마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0.0……

○**박찬숙 위원** 2월 초에 AC닐슨미디어 리서치에 하셨는데 0.059%이고요. 시청률이 0%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차관, 위원장을 출연시켜서 정책 생방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시청률이 낮은 것인지, 시청률이 낮다는 것은 음식은 만들어 놓았는데 먹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고 버리는 음식이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케이블TV 시청률 자체가 워낙 낮습니다. 특히……

○**박찬숙 위원** YTN은 굉장히 높습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YTN도 제가 알기로는 0.1%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찬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정책채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래도 케이블TV 안에서는 그래도 시청률이 조금……

○**박찬숙 위원**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방송,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 속에 공평한 시각 이런 것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일방적인 홍보이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다, 보나마나나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 보게 됩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면은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최근 2년 동안 비정규직 이직률이 아주 높더군요. 2003년에 21.28%, 2004년에는 38.94%인데 기본적인 조직의 안정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실업이 급증하고 어려운 때에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지금 비정규직, 일용직 문제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정부에서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천영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하도록 점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임금이 낮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박찬숙 위원** 임금을 높여줄 만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쓰고 그다음 어떻게 돼도 좋다는 무책임한 국정홍보처의 인사 관행 때문이라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기본적으로 예산도 낮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겠습니다.

○**박찬숙 위원** KTV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이경숙입니다.

국정홍보처 올해 추진방향이 국내적으로는 정책홍보 품질혁신으로 되어 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이경숙 위원 국정 운영과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치밀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산업자원부 모 공무원이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한 후에 홍보 부족으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참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개방형브리핑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정책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홍보마인드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지 않는가…… 이미 마련된 정책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국정홍보처의 홍보전문성강화 프로그램이 현재 효과를 보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 공직자들이 홍보마인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책홍보 품질혁신이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정책을 만들 때 항상 홍보를 염두에 두고 홍보계획과 함께 가는, 정책과 홍보계획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시스템화시켰습니다. 올해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정책과 홍보가 함께 가는 식으로 바뀌 가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언론이 왜곡해서 보도할 것이 두렵다, 그래서 공보업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공보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이경숙 위원 그래서 국정홍보처는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것인가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피부에 와 닿게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셨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이경숙 위원 구체적인 그 계획을 보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언론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피드백을 해 보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업무현황보고를 보면 현재 미국 내에 한국학 연구소하고 미국 백과사전 오류시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지요?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예,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교포하고 유학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앞으로 현지에서 오류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요. 늦었지만 이것은 잘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류시정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이미지 제고와 오류시정에 노력하면서 현지에서 여행을 하면서 취득한 다양한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흡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의 해외여행객이 여행 도중에 얻은 일본의 상품이미지 또 다양한 정보, 일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사이트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코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런 네트워크에서 오류시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미지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느끼는 것들을 겹쳐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그런 방향에서 적극 검토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앞으로 외통부하고 협의해서 국정홍보처가 해외에서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흡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우리의 정책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위원** 국정홍보처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7대 핵심 홍보과제의 대상으로 빈부격차·차별시정이 포함되어 있네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중점으로 여론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을 곳곳에 담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정홍보처에서 노동부의 제안을 받아서 비정규직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문문항도 대단히 부실하고 결과도 왜곡 발표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질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해 국감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설문문항을 만들 때는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 그런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시민의견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저장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거나 또 사업계획 속에 담아낸 것들이 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여론조사 설문문항은 어떤 건이 있을 때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때그때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천영세 위원** 현 정부가 참여정부 아십니까? 홍보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느 계층에 유리하게 내보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부에서 조사하는 설문문항, 조사내용이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 아주 냉정하게 상당히 잘되어 있다 이렇게 되도록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상홍보원 업무계획을 보니까 정책방송 채널 특화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에 ‘국무회의 중계석’ ‘정책브리핑’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는 방송이……

○**국정홍보처영상홍보원장 장동훈** 지난해에는 안 했습니다.

○**천영세 위원** 안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국정홍보처영상홍보원장 장동훈** 신설 프로인데 다음주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

○**천영세 위원** 지금 KTV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문광위는 어차피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이 관할하는 위원회니까 자주 와서 중계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KTV 오늘자 편성표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몇 편 방송하고 나서는 우리나라 황토 소개 프로그램이 일곱 번—우리보좌관들이 조사해서 확인을 했어요—재탕이 되고 관세청 소개 프로그램이 다섯 번 재탕이 되고 있는데……

○**국정홍보처영상홍보원장 장동훈** 지금 그 정도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천영세 위원** 보니까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빈약하고, 결국 여기서 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회TV, 아리랑TV 등 국가이미지 해외홍보를 위한 인프라들이 한 줄기로 엮어져서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 통합과 협력이 되어야 됴에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해관계, 밥그릇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는데 홍보처장님, 이제는 과감하게 통폐합할 부분은 통폐합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주변에서 그런 지적이……

○**천영세 위원** 지난번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가 얽힌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참여정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개혁, 효율성,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정기조에 맞추어 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착수할 때가 됐지 않았는지, 오히려 많이 늦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영세 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내시라고 해도 홍보처 자체로서는 갑갑하실 테지만 답변을 한번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준 위원** 작년에 가장 성공적인 국정홍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홍보를 해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작

년에 IPI 워치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홍보처에서 한 일로 본다면.....

○박형준 위원 아니, 그것은 결과로서 평가를 받은 것이고 국정홍보처가 실제로 국내외에 국정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참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지적해 주십시오.

왜 그 부분을 정리 안 하고 계신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작년에 잘된 것이 무엇이었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평가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잘된 것은 더 확장을 시키고 잘못된 것은 제거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작년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는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이것은 국정홍보처가 잘 한 국정홍보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아무리 자료를 봐도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가운데서 금년에 가장 기대를 하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성공시켜 보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개를 지적하기는 좀 그러니까 하나만 지적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는 경제에의 자신감 회복을 중점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줄 계획이고 또 다이내믹 코리아 홍보 이 두 가지를 간판 사업으로.....

○박형준 위원 지금 해외홍보원도 마찬가지로 전부 고객 중심 맞춤 홍보 이런 광고업계에서도 잘 쓰는 얘기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이것은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갖다 퍼먹인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가운데에서 정말 쌍방향적인, 그래서 호응이 다시 반응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계속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뭘까,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국정홍보처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안 되면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런 사업 하나라도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어야 국정홍보처가 진짜 필요한 조직이고 예산을 계속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문컨대 금년에는 반드시 성공적인 사

례를 하나나 둘이라도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콘셉트에 맞도록 좀 해 주세요. 고객 중심 맞춤 홍보 이것이 말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으로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의아한 것이 갑자기 ‘역동 한국’ 이런 개념이 튀어나왔어요. 다이내믹 코리아는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것에서부터 홍보의 관점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다시 만들어서 써야지요.

‘역동 한국’ 하면 어떤 감이 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들었을 때 역동 한국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홍보 콘셉트나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너무 상투적이다,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핵심 캐치프레이즈, 정말 중요한 콘셉트 같으면 다이내믹 코리아는 영어로 그대로 쓰더라도 거기에 걸맞은 우리나라에서 쓰일 만한 우리말로 된 홍보용어는 새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국말은 한국말대로 아름다움을 살려가면서 서로 시너지효과도 주고 국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홍보가 되지 이런 식으로 상투적으로 번역해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부터 시정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코리아플러스나 야호코리아가 각각 2만 5000부, 10만부씩 배포가 되고 있는데, 물론 배포 조직을 갖고 있고 현황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이 배포가 되어서 과연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제대로 읽히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평가시스템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3월부터 동봉엽서를 책자에 첨부해서, 다음 호부터 그렇게 나갑니다.

○박형준 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좀더 효과적으로 책자들이 전달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전달된 것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척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마련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알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 해외홍보원장님, 혹시 미국 초등학교 사회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안민석 위원 그 사회책에 세계지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셨나요?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홍보원장님께서 사회책을 보셨으면 당연히 지도에 동해 관련한 표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셔야 할 텐데 못 보셨다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국 초등학교 사회과목을 socialstudy라고 하는데 그 교과서입니다. 미국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사회책인데 여기 세계지도—제가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에 동해가 ‘Sea of Jap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고 미국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그 지도에 동해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일본해로 배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저도 이 동해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지만 실제로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엔이 ‘Sea of Japan’을 공식명칭으로 인정했더라고요. 혹시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저도 잘 몰라서 혹시 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여쭙었는데 참 문제이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East Sea’를 주장해 왔지만 국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이미 유엔에서도 일본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East Sea’와 ‘Sea of Japan’을 같이 병기하자는 한 발짝 물러선 주장을 했지만 이마저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전향적으로 전략을 바꾸어서 동해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Sea of Korea’라는 표기 방식을 인정해 달라고 해 봐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동해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해서 한때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 끝에 동해는 단순히 방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유한 명사이기 때문에 한국해보다는 동해가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저희가 동해 단독 표기 내지는 일보 양보해서 동해와 ‘Sea of Japan’을 병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민석 위원 그런 논의는 원장님이 책임하고 있는 동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전부터 계속 그런 입장을……

○안민석 위원 원장님 취임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그 논의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안민석 위원 지금은 그 논의가 없습니까?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좀더 이쪽 전문가하고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조선의원으로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17대 국회 동안에 다섯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Sea of Japan’ 표기 문제를 17대 동안 끊임 없이 제기하고 미흡한 노력이지만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질의를 앞으로 상임위원회 있을 때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점부터 앞으로 상임위가 있을 때는 ‘Sea of Japan’ 표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결과를 항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년 내내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노력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이미지조사하고 있지요? 국정이

미지조사 지금까지 네 차례 했지 않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현재요?

○심재철 위원 아니요, 그동안에 네 차례 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이미지조사 결과가 들어오면 정책에 반영이 잘 됩니까? 그래서 잘 된 것은 조금 더 키우고, 안 된 것은 이미지가 이러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바꾸든지 보강을 하는 식으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지금 관계부처라든지 이쪽에 그것을 다 배포해서 잘 된 것은 확대를 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동안 네 번 조사를 했는데 열두 가지 항목 중에서 경제항목은 25점 내외로 네 번 다 굉장히 낮잖아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은 결국 국민들은 2003년 봄부터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이 정책당국으로 피드백되어 가지고 당국에서는 아 경제가 문제구나 해서 정책에 변경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바로 그런 여론 수렴을 한 결과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올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의 주안점을 두고……

○심재철 위원 그것이 반영이 되는 데 1년 반씩이나 걸리고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신다면……

그래서 국정홍보처 피드백 기능이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조사해서 던져 주고 ‘점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정책은 곧 홍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피드백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조사를 해서 나타난 것이 정책변화에 실제 반영된 예가 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인터넷 오류 발견된 것 중에 동해표기 관련이 51%로 절반을 넘더라고요. 그만큼 동해

가 많다는 얘긴데, 이 중에서 정작 중요한 일본과 관련된 오류시정은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발견을 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냐, 특히나 이것이 일본 쪽과 직결되고 있으니까 ‘조용한 외교’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조는 아니십니까? 단순히 발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도 이렇게 오류의 절반 이상이 동해표기에서 나타나는데 일본 부분에서는 시정 실적이 왜 이렇게 적은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에 비해 영상홍보원의 실력이 10점을 만점으로 따져서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국정홍보처영상홍보원장 장동훈 숫자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요, 열악이 아니라 실력이……

다른 데 외부기관에서도 수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굉장히 질이 높아야 다른 외부기관에서 오더를 줄 텐데 민간에 비해서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홍보처영상홍보원장 장동훈 점수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공기업이라든지 정부 부처에서 주로 제작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대충 봐 주는, 다시 말해서 민간에서는 실력이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쪽한테 내가 작품을 의뢰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국정홍보처영상홍보원장 장동훈 가격 때문에…… 아마 민간에서는 그 가격으로는 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질은 괜찮은데 순전히 가격 문제입니까?

○국정홍보처영상홍보원장 장동훈 질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까지 정부 공공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해 왔던 것이 어떤 건이 있고 가격이 얼마 정도고 보통 시중에서 그 작품을 제작하

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래서 가격문제인지, 아니면 실력이 문제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KTV가 방송용으로 한 150억 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청률은 0.059%로 참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전파낭비 아닌가요? 이것은 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한마디로 전파낭비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심재철 위원 올해 시청률 목표를 몇 %까지로 끌어 올리시겠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저희들은 KTV의 시청률을 몇 %로 끌어 올린다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방송내용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시청률은 오르지 않겠느냐……

○심재철 위원 0.059%에 국민세금 150억이 쏟아 들어간다는 것이 참…… 0.059%면 관공서에 서나 아니면 직접 관련되는 제작부처랄지 이런 쪽에서만 그냥 한쪽에 채널 틀어놓고 일반 국민들은 거의 다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파에 계속 가까운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외국에는 국영케이블 사례가 뭐가 있고 그 케이블의 시청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최초에 KTV를 설립할 때 왜 설립해야 된다는 거창한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초기 대비 목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해서 주십시오.

부정적인 국가이미지 시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유럽 계통에서 대표적으로 개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시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미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의 포지셔닝입니다. 대한민국의 포지셔닝이 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나오는데 도대체 현재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표적으로 개고기에 관한 이미지 시정노력을 무엇을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진 위원 이계진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론조사가 여러 번 언급됐습니다. 여론조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이계진 위원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정직하고 정확한 것이 생명이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런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국정홍보처장이 누구인지 아나?’ 이런 질문에 ‘모른다’가 16%, ‘이름을 들어본 것 같다’가 65% 나오고 ‘안다’라고 한 사람이 19%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른다’와 ‘안다’가 한 8 대 2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질문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을 보니까 ‘잘 생겼다’가 20%, ‘그저 그렇다’ 20%, ‘못 생겼다’ 60% 이렇게 나와서 부정적으로 본 것이 한 80%라고 가정합니다.

이 여론조사 보면 섭섭하거나 화나시겠습니까? 결과를 보면 그러시지요? 처장님 인물이 참 좋은데……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글썄,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이계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을 잘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1번에서 국정홍보처장이 누구인지 안다는 사람이 19%밖에 안 되는데 인물평가를 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면 잘 생긴 사람을 못 생겼다고 얘기한 결과가 돼서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것은 올바른……

○이계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정홍보처가 지난해 10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 의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6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의 80%가 정부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정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는 첫 번째 설문

문항에 16.2%가 ‘전혀 모른다’, 65.1%가 ‘범안 내용은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다’, 결국 응답자의 81% 이상이 이후 설문에서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80%가 정부범안을 찬성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일 있지요?

국정홍보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 엉터리 아닙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이 장난으로 한 예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국정홍보처에서 조작으로 여론조사의 기능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노동계에서 이것을 수용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바르게 한 여론조사도 믿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국정홍보처의 여론조사가 이런 식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비정규직과 관련한 여론조사 메뉴의 첨부파일들이 모두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설문조사’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정홍보처의 실수를 감추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잘못된 정부 정책이 받는 저항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방법인지, 착오인지, 어떤 것입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

○이계진 위원 제가 드린 예에 대해 하실 말씀 없지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홍보를 정확한 여론으로 해야지 유도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든 누누이 얘기했지만 절대 정책홍보를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청와대를 위한 홍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 신뢰가 딱 떨어지면 진짜도 안 믿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참고로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철도공사를 철도청이라고 게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남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국어학 하시는 교수님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국정홍보처 홍보캠페인이 광고가 참 잘 됐다고 되어 있어요. 감동이 있고 완성도가 높은 광고를 만들었다, 높이 평가한다…… 한 10줄 정도 짤막한 카피를 죽 써봤는데, 짧기 때문에 인

상적이고 짧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거든요. 소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열다섯 차례의 중요한 단어를 장음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도 이것을 ‘시작’이라는 말 빼고는 다 단음으로 짧게 발음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정홍보처에서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서 올바르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경박하기 그지없는 말투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KBS나 이런 데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정확한 발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카피도 좋고 광고도 다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나쁜 말…… 광고문안은 아이들이 따라하거든요. 사실 이것까지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이것까지도 챙긴다면 더 훌륭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바른 여론의 바탕 위에 정확한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감사 때 다시 뵙겠습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 위원 손봉숙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국가이미지위원회가 조직도 개편했고 그랬는데 예산과 인력이 확보됐느냐 물었더니 예산도 없고 그렇다, 야당이 국가홍보에는 예산을 주기를 꺼린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국가이미지 홍보하는 것을 꺼리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국가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여야가 있습니까?

그 돈을 정권홍보를 하는 데 쓰니까 야당이 반대하겠지요?

홍보처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야당 위원님들도 국가이미지 홍보예산……

○손봉숙 위원 국가이미지 홍보예산은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손봉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봉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 국가이미지위원회가 받은 예산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

○손봉숙 위원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실무위원회 운영만 해도 2억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2004년도에 36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모였는지 아십니까?

2002년에 신설된 국가이미지위원회가 그동안 이름만 개발위원회, 무슨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회…… 온갖 이름만 바꾸고 2004년 2월 세 번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고, 국가이미지실무위원회 또한 이제까지 네 번의 회의만 소집됐을 뿐입니다.

소집될 만한 안건이 없는 것이지, 또 소집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국가이미지실무위원회 구성 이후 2년 6개월 동안 단지 네 번만 회의가 소집됐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 없지 않으세요? 준예산도 다 안 쓰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타령을 하십니까? 이해하기 힘들네요.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실무위원회가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5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500만 원만 집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때까지도 아직 개설을 안 했습니다.

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도 돈만 있으면 한 달 안에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국정홍보처가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놓고도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

○손봉숙 위원 그런데 처장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것도 모르세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손봉숙 위원 아니, 수치가 아니라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십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알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왜 없습니까? 이유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이미지 홈페이지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만 국정홍보처……

○손봉숙 위원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56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가셨는데 왜 안 하느냐고요.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국정홍보처 홈페이지에 ‘참여정부 알림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별도……

○손봉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곧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예산은 갖다 놓고……

그러면 56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이내믹 코리아’, 이제는 어디든지 다이내믹 코리아 하나로 물고 늘어지시는 데 뭐든지 다이내믹 코리아 그러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 뭐였지요? 예를 들면 랜드 오브 모닝칼름(Land of Morning Calm)이라든가 허밀 컨트리(Hermit Country)라든가 그런 이미지에서 하루아침에 다이내믹 코리아로 점프를 해 버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모닝칼름이라는 것이 더 맞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이내믹이 맞을 때도 있고 콘셉트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홍보가 ‘역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 이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다이내믹 한마디로 다 감쌀 수 있는 것인지?

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국가들에 다이내믹 코리아를 굉장히 홍보하고 있는데 아시아권, 중동권에 대한 지역별 차별화 전략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전략 같은 것을 구상해 보신 것 없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죽 듣고 느끼는 것은 처장님이 아직……

처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1년 넘었습니다.

○손봉숙 위원 1년 넘으셨는데 아직도 홍보처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그런 것은 죽 직원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브리핑 추진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부서도 있고 장·차관 브리핑을 주 1회 이상 실시한 부처는 환경부가 유일하고 통계청, 대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의 장·차관급 이상의 브리핑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브리핑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횟수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가 준비한 것을 읽어 주는 것이 과연 충분한 브리핑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거듭 제기합니다.

그리고 국감 때 제가 정치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것을 제시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하고 처리하겠다고 대답만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일체 시정했거나 감안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시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하기 힘든데 브리핑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데……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문제는 브리핑을 내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과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고 상황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체라든지 또는 직접 해당기관을 찾아가서 브리핑 횟수라든지 내용을 알차게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봉숙 위원 정부 부처가 1년 동안 장·차관급 브리핑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 어떻게 그 부서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지요?

브리핑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처장님, 취임 2주년을 맞은 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을 보셨잖아요? 흡족하지 않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아직도 저희들의 기대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작년 1주년보다는 상당히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 자체를 가지고 만족하신다는 뜻이에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 낙제점수인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탈권위주의와 부정부패 척결 분야가 보통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정책을 비롯해서 실업 문제, 빈부격차 완화 문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교육개혁 등의 항목들은 보통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이 됩니까? 과도한 수도이전 추진, 대형국책사업 표류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정책역량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에서는 무리하게 과도한 수도이전 추진에 대한 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대표적으로 지난 연말을 전후로 해 가지고 이런 홍보책자, 주로 KTX를 비롯해서 열차에 많이 배포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팸플릿 배포했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것 몇 부나 하셨어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70만 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것을 보니까 ‘행정도시와 선진한국 크게 보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행정수도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도시’를 씁니까?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원래는 50만 부 하려고 그랬다가 추가로 20만 부 이렇게 고쳐 가지고 제작했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20만 부를 ‘행정도시와 선진한국’, 결국은 이것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억지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정홍보처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 정부가 제일 잘못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중에서 제일 잘못하는 것이 바로 과도한 수도이전 추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원칙 없이 홍보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 12월에 행정자치부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혁신 평가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국정홍보처는 국민만족도조사에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중 최하위권인 미흡판정을 받았지요?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혁신평가 작업은 크게 보면 전략적 종합혁신 능력, 혁신관리 역량, 정부혁신과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했는데 홍보처의 경

우는 일부 과제가 성과지표의 객관성 미확보, 정책홍보에 대한 효과성 평가노력 미흡, 일부 자원 활용 효율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국정홍보처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모두 낙제점수를 받는 것이예요.

그리고 또 지적된 사항이 정보화소외계층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미진했다, 올해 역점사업 중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것도 형식적으로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춤형 홍보를 제대로 하십시오.

여기 보면 결국은 이렇게 국민들 생각과는 너무 괴리된 측면에서 행정도시 건설 홍보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형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황판단, 환경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황 속에서 무리한 홍보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부에게 유리하거나 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이것이 수용이 안 됩니다. 소구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KTV도 그렇게 시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하는데 누가 받아들입니까? 지금은 디지털시대예요. 디지털시대에 맞는, 서로 다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식의 홍보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해외홍보원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러시아를 갔다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쌍뜨 삐찌르브루그대학의 한국학과 학과장을 만났더니—러시아 사람인데—“왜 한국에서는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그런 식으로밖에 행사를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한국영화주간을 만들 테니까 상영할 장소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사방팔방 알아보니까 빈 공간이 없어서 구석진 데를 했더니만 별로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욕을 잔뜩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침 해외문화홍보원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외문화홍보원장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

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해외문화홍보원장이 하소연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4월, 5월 행사였다고 하는데 예산이 4월에 내려오면서 갑자기 한국영화주간을 만들어 보라, 5월 중에 해라 이런 식의 오더가 내려왔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그것이 부처로 넘어와서 부처에서 각 해외문화홍보원이라든가 이런 데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또 기획예산처에서 받는 과정에서 보면 특히 봄에 하는 행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난처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라고만 하지 마시고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전에 확정을 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같은 돈 들여 가지고도 형식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장소를 사전에 예약하고, 어느 장소든지 좋은 장소를 예약하려면 1년 전에 예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외국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미국을 갔더니 우리 교포가 많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교포들이 하소연하기를 미국 도서관에 가면 한국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예요. 한국을 홍보하는 책자도 없고, 그래서 미국 교포 2세들이 공부를 하면서 한국 관련된 자료를 찾는데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숙제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에다가 홍보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것이 실질적인 홍보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외교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해외동포재단과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한국 관련 홍보책자를 얼마만큼 배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잘 판단하십시오. 이것도 타깃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정홍보처해외홍보원장 유재웅**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도중에 윤원호 위원, 박찬숙 위원, 박형준 위원, 심재철 위원, 김재윤 위원, 손봉숙 위원, 정병국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영상홍보원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 유재웅 해외홍보원장, 장동훈 영상홍보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산회)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영유권 주장 망언에 따른 「한·일 우정의 해」 문화교류행사의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결의문

발의연월일 : 2005. 2. 28

발의자 : 문화관광위원장

주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과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 상정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광복 60주년과 한·일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2005년도를 「한·일 우정의 해」로 지정한 시점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또다시 일본 정부의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독도 문제를 국제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 정부의 야심이 노골화된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증거와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을 명백히 천명하며, 일본 정부에 대하여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 상정이라는 비열한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에 대하여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의 날’ 지정과 새로 발행되는 지폐에 독도 전경을 삽입하는 등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 망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광복 60주년 및 한·일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일 우정의 해」 행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05년도는 한·일특약 체결 100주년과 광복 60년이 되는 해임과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한·일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상처와 일제식민지 잔재가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정과 이해를 다져 나가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2005년도를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과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 상정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바라볼 때, 광복 60주년과 한·일 수교 4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국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 정부의 야심이 노골화된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영토침탈 발언을 묵인해서는 아니 되며, 「한·일 우정의 해」 지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양국간의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행사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出席委員(20人)

김재훈	김재홍	노웅래	민병두
박찬숙	박형준	손봉숙	심재철
안민석	우상호	윤원호	이계진

이 미 경	이 재 오	이 재 응	정 병 국
정 종 복	정 청 래	천 영 세	최 구 식

○請暇委員(1人)

강 혜 숙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문 희
전 문 위 원	손 준 철

○政府側參席者

문화관광부

장	관	정 동 채
문 화 정 책 국 장		이 성 원

국정홍보처

처	장	정 순 균
차	장	이 백 만
홍 보 기 획 국 장		권 영 후
홍 보 협 력 국 장		인 병 택
전 자홍보분석국장		이 염
해 외 홍 보 원 장		유 재 응
영 상 홍 보 원 장		장 동 훈
해외홍보원의신협력관		정 인 준

한국방송공사

사	장	정 연 주
감	사	강 동 순
부 사	장	안 동 수
편 성 본 부 장		이 동 원
보 도 본 부 장		김 흥 택
T V 제 작 본 부 장		장 윤 석
라디오제작본부장		조 원 석
기 술 본 부 장		홍 수 완
경 영 본 부 장		정 태 진
정 책 기 획 센 터 장		이 규 환

방송위원회

위 원	장	노 성 대
부 위 원	장	이 효 성
사 무 총 장		표 철 수
연 구 센 터 장		최 준 근
기 획 관 리 실 장		정 순 경
방 송 정 책 실 장		김 춘 식
방 송 진 흥 국 장		정 진 우
시 청 자 지 원 실 장		황 부 근
감 사 실 장		함 상 규
평 가 심 의 국 장		윤 혜 주
매 체 정 책 국 장		조 규 상